석독 구결의 두 관형사절에 대해

-'-ㅌㄷ/-ᄉㄷ'과 '-ㄱ/-ㄲ'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황국정*

1.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국어의 용언이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관형사형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사절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국어의 관형사절은 다시 명사구 보문과 관계절로 구분된다. 전자는 피수식어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절 안의 성분이 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될 수 있는 통사적인 차이를 가진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절을 이끄는 관형사형어미인 '-ㄴ'과 '-ㄹ'은 15세기 이후 한글 자료에서도 그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15세기 이전 구결 자료에서는 '-ㄱ, -ㄲ'로 실현된다. 그런데 한글 자료에서와는 달리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서는 국어의 관형사절이 '-ㄱ, -ㄲ' 외에 '-ㅌㄷ, -ᄉㄷ'을 통해서도 실현되어 특이성을 보인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때의 '-ㅌㄷ, -ᄉㄷ'이 대체로 현대어의 관형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ㄱ, -ㄲ'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ㅌㄷ/-ᄉㄷ'과 '-ㄲ/-ㄱ'의 기능이 동일했다면 '-ㄲ/-ㄱ'이 쓰여야 할 자리에 '-ㅌㄷ/-ᄉㄷ'이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ㄲ'

* 고려대 대학원

의 경우에는 의존명사 앞 또는 어미체 속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실현되며 특히 '-ㅁ' 뒤에 대체로 자립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자립명사가 실현되는 환경에서는 대신 '-ᄉᆞᆫ'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ㅌᆞᆫ/-ᄉᆞᆫ'과 '-ㅁ/-ㄱ'이 실현되는 통사적 환경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2] 이에 본고는 '-ㅌᆞᆫ, -ᄉᆞᆫ'과 '-ㄱ, -ㅁ'이 실현된 구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사적인 차이를 가지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ㅌᆞᆫ/-ᄉᆞᆫ'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 이동림(1982)는 '-ㅌᆞᆫ' 전체를 관형어미로 처리했으며 남풍현(1996가)는 '-ᄉᆞᆫ'에 의존명사의 실현을 상정한 반면 남풍현(1996다)는 '-ㅌᆞᆫ'을 '동명사어미+속격조사 ㅅ'으로 보고 동명사어미 'ㄴ'과 'ㅅ'의 결합인 'ㄴㅅ'의 연쇄가 불가능하므로 '-ㄱᆞᆫ'대신에 '-ㅌᆞᆫ'이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ㅌᆞᆫ'에 의존명사를 상정하지 않는 논의로는 이승재(1996)이 있는데 그는 '-ㅌᆞᆫ'에 의존명사를 상정하지 않는 대신 '동명사어미+처격조사+속격조사'로 보았다. 이와는 다르게 '-ㅌᆞᆫ'에 의존명사를 상정하는 논의(박진호 1998)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ㄱᆞㅌᆞᆫ'의 분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ㅌᆞᆫ'을 '-ㄱᆞㅌᆞᆫ'에서 'ㄱ'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각각이 실현된 구문의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경우와(박진호 1998) '-ㅌᆞᆫ'과 '-ㄱᆞㅌᆞᆫ'의 의미 차이를 인정하는 논의(이장희 1995, 남풍현 1996다)가 있다. 이처럼 '-ㅌᆞᆫ/-ᄉᆞᆫ' 그리고 '-ㄱᆞㅌᆞᆫ'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각이 실현된 구문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ㅌᆞᆫ/-ᄉᆞᆫ'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ㅌᆞᆫ,

2) 이에 대해서는 이장희(1995)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그는 이밖의 다른 통사적인 차이나 이러한 차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ᄉᆞᆫ'과 '-ㄱ, -ᄆᆞ'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세분화하고 각 환경에서 실현된 빈도수를 조사하여 통계를 내어 보았다. 대상 자료는 『瑜伽師地論』 『華嚴經』 『金光明經』 『舊譯仁王經』이며,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각각 '瑜, 華, 金, 舊'로 약칭하여 사용했다.

2. '-ᄉᆞᆫ' 구문과 '-ᄆᆞ' 구문의 차이

<표1>은 석독 구결 개별 문헌별로 '-ᄉᆞᆫ'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핀 것이다. (ㄱ)은 '-ᄉᆞᆫ'이 보문에서 실현된 횟수이며 (ㄴ)은 관계절에서 실현된 횟수이다. (ㄷ)은 관계절에서 피수식 명사가 관형사절 서술어의 주어로 실현된 경우이며 (ㄹ)은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를 살핀 것이다. 그리고 (ㅁ)은 관형사절에서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로 실현된 경우이며 (ㅂ)은 의존명사로 실현된 경우이다. 다음으로 (ㅅ)에서는 '-ᄉᆞᆫ'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제3의 요소가 개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ㅇ-ㅊ)을 통해 관형사절 서술어가 동사로 실현되었을 경우(ㅇ), 형용사로 실현되었을 경우(ㅈ), 계사가 실현되었을 경우(ㅊ)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실현되는 빈도수를 조사했다.

<표1> : 개별 문헌별 -ᄉᆞᆫ 구문의 실현 양상

	-ᄉᆞᆫ 구문			
개별 문헌	瑜(79)[3]	華(27)	金(7)	舊(9)
ㄱ.보문	69/87.3[4]	16/59.3	5/71.4	8/88.9
ㄴ.관계절	10/12.7	11/40.7	2/28.6	1/11.1

3) 『유가사지론』에서 ᄉᆞᆫ이 보문 구성에서 실현된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4) '/'의 왼쪽은 나타낸 개수이며 오른쪽은 개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ㄷ.주어	10/100	11/100	2/100	1/100
ㄹ.목적어	0/0	0/0	0/0	0/0
ㅁ.자립명사	79/100	27/100	7/100	9/100
ㅂ.의존명사	0/0	0/0	0/0	0/0
ㅇ.동사	66/83.5	27/100	6/85.7	9/100
ㅈ.형용사	11/13.9	0/0	0/0	0/0
ㅊ.계사	2/2.6	0/0	1/14.3	0/0

<표2>는 석독 구결 전체 문헌에 나타난 '-ᄉᆞᆫ'의 실현 양상이다.

<표2> : 전체 문헌에서의 '-ᄉᆞᆫ' 구문의 실현 양상

전체 문헌	-ᄉᆞᆫ 구문(122)
ㄱ. 보문	98/80.3
ㄴ. 관계절	25/20.5
ㄷ. 피수식 명사가 주어	25/100
ㄹ.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0/0
ㅁ.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122/100
ㅂ.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	0/0
ㅇ. 동사	108/88.5
ㅈ. 형용사	11/9.0
ㅊ. 계사	3/2.5

<표3>은 '-ㆆ'이 관계절 구문에서 실현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통사적인 양상이다.[5]

---

5) 'ㆆ'의 경우 보문에서 실현된 횟수와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는 살피지 않았다. 'ㆆ'은 대부분 의존명사와 결합하며 보문 구성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ㆆ'이 관계절 구성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관계절 구성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의존명사 '所(바)'가 실현되었을 때이다. 그러므로 표에서 말하는 의존명사는 '所(바)'이다.

<표3> : 관계절에서 실현된 ㆆ구문

	瑜	華	金	舊
ㄱ. 관계절	26	23	15	9
ㄴ. 주어	3/11.5	5/21.7	15/100	7/77.8
ㄷ. 목적어	23/88.5	18/78.3	0/0	2/22.2
ㄹ. 자립명사	5	0	15	8

<표4>는 <표1-3>을 바탕으로 관계절에서 '-ᄉᆞᄂᆞᆫ'이 실현되었을 때와 '-ㆆ'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통사적인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표4> : '-ᄉᆞᄂᆞᆫ' 구문과 '-ㆆ' 구문의 비교

전체 문헌	-ᄉᆞᄂᆞᆫ 구문	-ㆆ구문
ㄱ. 관계절	25/25.5	73/74.5
ㄴ. 피수식 명사가 주어	25/43.9	32/56.1
ㄷ.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0/0	41/100
ㄹ.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122/81.3	28/18.7
ㅁ.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	0	100
ㅂ. 제 3의 요소 개입	5/83.3	1/16.7

<표1-4>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이면 관형사절에서 '-ㆆ'만 실현된다. 그리고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이면 반대로 '-ᄉᆞᄂᆞᆫ'이 실현되는데 이 때 반드시 '-ᄉᆞᄂᆞᆫ'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6] 즉 '-ᄉᆞᄂᆞᆫ'

6) 이장희(1995)에서는 'ㆆ' 뒤에 자립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ㆆ' 뒤에 자립명사가 나타나는 예도 존재한다.

은 의존명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프'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프'이 자립명사와 결합하는 환경은 제약적이다. 이처럼 '-프'의 경우 자유롭게 자립명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ᄉᆞᆫᄃᆡ' 뒤에서는 의존명사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1) ㄱ. [於] 无常ᄒᆞ+ 修ㅅ프 所ᄂᆞᆫᄃᆡ 苦想ᄒᆞ+ 略ᄆᆞᄀᆞ(无常아기 닷골 밧 苦想아기 略곤)<瑜10,15-,23>
ㄴ. [於] 无常ᄒᆞ+ *修ㅅᄉᆞᆫᄃᆡ 所ᄂᆞᆫᄃᆡ 苦想ᄒᆞ+ 略ᄆᆞᄀᆞ

둘째, '-ᄉᆞᆫᄃᆡ'은 관계절보다 보문에서 실현되는 빈도수가 높다. <표2>에 의하면 석독 구결 전체 문헌에서 약 80%의 높은 비율로 보문에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관형사절이 보문으로 실현되고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이면 반드시 '-ᄉᆞᆫᄃᆡ'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2ㄱ)처럼 '*보문+프+자립명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보문+프+의존명사'이든지(2ㄴ), '관계절+프+자립명사'(2ㄷ) 구성만이 가능하다.

(2) ㄱ. 若ᄂᆞᆫᄃᆡ {*飯食ㅅ프} 時ᄒᆞᄀᆞ 當願衆生禪悅ᄂᆞ 食爲ᄒᆞᄉᆞᆫ 法喜ᄂᆞ 充滿ㅅᄇᆞᆮᄂᆞᆫ 若ᄂᆞᆫᄃᆡ {飯食ㅅᄉᆞᆫᄃᆡ} 時ᄒᆞᄀᆞ 當願衆生禪悅ᄂᆞ 食爲ᄒᆞᄉᆞᆫ 法喜ᄂᆞ 充滿ㅅᄇᆞᆮᄂᆞᆫ(ᄒᆞ다갓 飯食ᄒᆞ릿 ᄠᅴ 當願衆生禪悅을 밥 사ᄆᆞ며 法喜를 充滿ᄒᆞᄂᆞ써)<華嚴14;7:18>
ㄴ. 煩惱ㅣ {起ㅅ프} 所ᄒᆞᆫ 無ᄆᆞᄀᆞ ᄉᆞᆫᄂᆞ 知ᄒᆞᆫᄇᆞ(煩惱이 起홇 바 업손 ᄃᆞᆯ 아라곰)<華嚴14;13:17-18>
ㄷ. 衣服ㅗ 飮食ㅗ 諸坐臥具ㅗ {病緣醫藥ㅗㅅ프} 供身什物ㄴ 奉施ㅅ프ᄋᆞᆯᄃᆡ(衣服여 飮食여 諸坐臥具여 病緣醫藥여ᄒᆞᆯ 供身什物을 奉施ᄒᆞᆯ디다)<瑜03,15-,22>

셋째, '-ᄉᆞᆫᄃᆡ'이 관계절 구문에서 실현될 때 피수식 명사는 주어로만 나

타나며[7] 목적어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일하게 실현되었더라도 '-ㆆ'이 실현되느냐 '-ㅅㄷ'이 실현되느냐에 따라 구문의 성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3)은 관형사절 서술어가 모두 동일하게 '攝ㅅ-'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ㄱ)의 '不淨想'은 관형사절 서술어의 의미상 목적어로서 관계절 구문에서 실현된 것이지만 (3ㄴ)의 '智'는 관형사절 내부의 어떤 성분도 되지 못하며 보문의 수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ㅅㄷ' 관계절 구문에서 피수식 명사가 관계절의 주어로만 실현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3) ㄱ. 思擇力ᄆᆞᆷ 攝ㅅᄒᆞ 不淨想ㄷ 中ᄒᆞ十 當ㅅ 知ᄀᆞᆸ(思擇力으로 攝홀 不淨想 中아기 반다기 알오다) <瑜09,20>
ㄴ. 衆生ㅣ 攝ㅅㅅㄷ 智ㅣ 得ᄃᆞᆨ가(衆生을 攝호릿 智를 얻ᄂᆞ리며)<華嚴14;12:05>

넷째, '-ㆆ'이 자립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3)처럼 관형사절과 피수식 명사가 동격의 의미 관계를 가질 때이거나 (4)처럼 일부 피수식 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의 의미상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므로 피수식 명사가 관계절과 동격의 의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관계절의 주어로 실현된 (5ㄱ)과 같은 예에서는 '-ㆆ'이 실현되지 않는다. 피수식 명사가 관계절 서술어의 의미상 주어로 실현되면서 '-ㆆ'이 실현되는 경우는 (6)처럼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뿐이다.

(3) 衣服ㅅ 飮食ㅅ 諸坐臥具ㅅ 病緣醫藥ㅅㅅㄷ 供身什物ㅣ 奉施ㅅㆆ ᄉᆞᆸ(衣服여 飮食여 諸坐臥具여 病緣醫藥여홀 供身什物을 奉施홀디다)<瑜03,15-,22>

---

7) 예는 색인을 참조하기 바란다.

(4) 思擇力ᄆᆞ 攝ㅅ尸 不淨想ㄷ 中ᄒᆞ十 當ㅅ 知ᄀᆞ|(思擇力으로 攝홀 不淨想 中아기 반다기 알오다) <瑜09,20-10,02>

(5) ㄱ. 四種 過失ㄴ 遠離ㅅᄒᆞᄉᆞ 而ᄆᆞ *聽法ㅅ尸 者ㄴ 名下 正聞法ㅗ ㅅᄒᆞ|

ㄴ. 四種 過失ㄴ 遠離ㅅᄒᆞᄉᆞ 而ᄆᆞ 聽法ㅅ令ㄷ 者ㄴ 名下 正聞法ㅗ ㅅᄒᆞ|(四種 過失ᄋᆞᆯ 遠離ᄒᆞ야곰 이로 聽法ᄒᆞ릿 者ᄅᆞᆯ 일하 正聞法여호리다) <瑜04,10-,14>

(6) 四相ㄴ 由ᄒᆞ [於]生起ㅅ尸 所ㄷ 三摩地ㄷ 中ᄒᆞ十(四相ᄋᆞᆯ 브터 生起홀 밧 三摩地ㅅ 中아기)<瑜14,17-,22>

여기서 이처럼 '-尸'이 자립명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1ㅅ>에서 관형사절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제 3의 요소의 개입 정도와 관련시켜 논의할 수 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令ㄷ' 구문에서는 제 3의 요소가 개입되는 예가 보이나((7)-(8)), '-尸' 구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尸'과 피수식 명사와의 결합이 '-令ㄷ+피수식 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尸'과 결합한 의존명사가 하나의 문법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尸+의존명사'가 하나의 문법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을 때의 '-尸'은 모두 보문 구성에서 실현된 것이다.[8]

(7)ㄱ. 讚頌ㅣ 如來尸 實功德ㄴ 〔稱歎ㅅ白ᄀᆞ令ㄷ〕 是如ᄒᆞᄉᆞᆫ 種種ㄷ 妙言辭ㄴ 皆ㄷ 掌內ㄴ 從ㄷ(讚頌이 如來ㅅ 實功德을 稱歎ᄒᆞ令 보릿 이 다ᄒᆞᆫ 갓갓 妙言辭ᄅᆞᆯ 다ᄆᆞᆺ 掌內ᄅᆞᆯ 좃)<華嚴14;16:02-

8) 이는 '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ㄱ+의존명사'가 하나의 문법 형태로 굳어진 경우의 'ㄱ'은 보문 구성에서 실현되었던 요소이다. 이처럼 보문에서 실현되었던 'ㄱ, 尸'이 문법형태화한 것은 이들이 수식하는 명사(의존명사)가 내포문 안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03>

ㄴ. 讚頌ㅣ 如來ㅣ 實功德ㅣ *{稱歎ㅅ白ᄆᆞᆫㅣ} 是如ᄒᆞᆫㅅ 種種ㄴ 妙言辭ㅣ 皆ㄴ 掌內ㅣ 從ㄴ

(8)ㄱ. 灌頂大神通ㅣ 獲ᄒᆞ尒 {[於]最勝ㅅᄉㄴ} 諸ㄱ 三昧ᄒᆞ十 住ㅅㅂ 𠯿ᄀᆞ(灌頂大神通ᄋᆞᆯ 어더곰 最勝ᄒᆞ릿 모ᄃᆞᆫ 三昧아기 住ᄒᆞᄂᆞ리며)<華嚴14;13:23-24>

ㄴ. 則 灌頂大神通ㅣ 獲ᄒᆞ尒 *{[於]最勝ㅅᄆᆞᆫㅣ} 諸ㄱ 三昧ᄒᆞ十 住ㅅ ㅂ 𠯿ᄀᆞ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ᄉᆞㄴㄴ'과 '-ᄆᆞᆫㅣ'이 모두 실현되는 환경

① 관계절 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관형사절과 동격의 의미 관계로 실현될 때

(9) 三界ㄴ 中ᄒᆞㄴ 衆ㅅㅣᄆᆞᆫㅣ 十二大衆ㄱ 皆ㄴ 來ㅅᄒᆞ尒 集會ㅅᄒᆞ 九劫蓮花座ᄒᆞ十 坐ㅅ白ᄅᆞᄀᆞᆷ <舊仁02:07-8> (他方ㅅ 大衆여 ᄆᆡᆨ 뻐곰 化衆여 이 三界ㅅ 中앳 衆여 ᄒᆞᆯ 十二大衆은 닷 來ᄒᆞ야곰 集會ᄒᆞ야 九劫 蓮花座아히 坐ᄒᆞᄉᆞᆯ본ᄃᆡ)(三界의 가운데에 있는 대중이라 할 十二大衆은 모두 와서 集會하고 九劫 蓮花座에 坐定하였는데)

(10) 量 無ㄴㄱ 菩薩ㅅ 比丘ㅅ 八部ㅅㅅᄉᆞㄴㄴ 大衆ㅣ 有ㅏㅎㄷᄒᆞ 各ᄀᆞ各ᄀᆞ寶蓮花ᄒᆞ十 坐ㅅㄷᄒᆞ <舊仁02:04> (헤아룜 업슨 菩薩여 比丘여 八部여 호릿 大衆이 겨기시하 제제곰 寶蓮花아히(아긔) 좌하시며(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비구와 八部라고 하는 大衆이 계셔서 제각기 寶蓮花에 앉으시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이처럼 관계절 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관형사절과 동격의 의미 관계

로 실현될 경우 '-尸'과 '-ᄉᆞᆫᄃᆡ'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9)의 경우보다 (10)의 실현 빈도수가 더 많으며 동격의 'ᄃᆡ'의 용법(졸고 2000)을 염두해 둘 때 후자가 기원적인 형태이고 전자는 후대형을 반영한 표기일 가능성이 크다.

'-ᄉᆞᆫᄃᆡ'과 '-尸'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환경

①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 : *-ᄉᆞᆫᄃᆡ

(11) [於] 无常ᄋᆞ+ 修ノ尸 所ᄃᆡ 苦想ᄋᆞ+ 略ㅁㄱ(无常아기 修홀 밧 苦想아기 略곤)<瑜10,15-,23>

(12) [於] 无常ᄋᆞ+ *修ノᄉᆞᆫᄃᆡ 所ᄃᆡ 苦想ᄋᆞ+ 略ㅁㄱ

②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 서술어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 : *-ᄉᆞᆫᄃᆡ

(13) [於] 无常ᄋᆞ+ {修ノ尸} 所ᄃᆡ 苦想ᄋᆞ+ 略ㅁㄱ(无常아기 修홀 밧 苦想아기 略곤)<瑜10,15-,23>-관계절 목적어

(14) 正方便ᄆᆞ 諸想ㄴ {修ノᄉᆞᆫᄃᆡ} 者ㄱ(정방편으로 제상올 수ᄒᆞ릿 자ᄂᆞᆫ)<瑜12,18-13,03>-관계절 주어

(15) 正行ㄴ {修ノᄉᆞᆫᄃᆡ} 時ㅗ+(정행을 수ᄒᆞ릿 ᄢᅴ여긔)<瑜05,17-,22>-보문

③ 보문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인 경우 : *尸

(16) 如來尸 弟子ㅣ 生圓滿ㄴ 依ᄋᆞ {轉ノᄉᆞᆫᄃᆡ} 時ㅗ+(如來ㅅ 弟子이 生圓滿을 依ᄒᆞ야 轉ᄒᆞ릿 ᄢᅴ여긔)<瑜04,15-,19>

(17) 心 {安住ノㅂᄃᆡ} 時ㅗ+(ᄆᆞᅀᆞᆷ 安住ᄒᆞᄂᆞᆫ ᄢᅴ여긔)<瑜25,18-26,02>

(18) {[於]尒ノㄱ} 時ㅗ+(이러ᄒᆞᆫ ᄢᅴ여긔)<瑜23,18-,23>

이상으로 '-尸'과 '-ᄉᆞᆫᄃᆡ'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나타나는 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

ᄐᆞ'과 '-ᄉᆞᆫ'이 실현되는 환경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ㅌㄴ' 구문과 '-ㄱ' 구문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ㅌㄴ' 구문과 '-ㄱ' 구문의 차이

<표5>도 <표1>과 마찬가지로 '-ㅌㄴ'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인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관형절을 관계절과 보문으로 구분하고 관계절의 경우,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는 예와 목적어로 실현되는 예를 조사하는 등의 통사적인 환경을 주고 각각의 문법 형태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5> : 전체 문헌에서 실현된 '-ㅌㄴ' 구문의 특징

	-ㅌㄴ 구문			
개별 문헌	瑜(19)	華(23)	金(7)	舊(17)
ㄱ. 보문	7/36.8	2/8.7	2/28.6	11/64.7
ㄴ. 관계절	12/63.2	21/91.3	5/71.4	6/35.3
ㄷ. 피수식 명사가 주어	12/100	21/100	5/100	6/35.3
ㄹ.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0	0	0	0
ㅁ.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19	23	7	17
ㅂ.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	0	0	0	0

<표6> : 전체 문헌에서 실현된 '-ㅌㄴ' 구문

전체 문헌	-ㅌㄴ 구문(66)
ㄱ. 보문	22/33.3
ㄴ. 관계절	44/66.7

ㄷ. 피수식 명사가 주어 44/100
ㄹ.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0/0
ㅁ.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66/100

<표7> : 개별 문헌의 관계절에서 실현된 ㄱ 구문[9]

	瑜	華	金	舊
ㄱ. 관계절	202	30	50	27
ㄴ. 피수식 명사가 주어	160/79.2	25/83.3	48/96	25/92.6
ㄷ.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42/20.8	5/16.7	2/4	2/7.4
ㄹ.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185	37	51	37

<표8> : 전체 문헌의 '-ㅌㄷ' 구문과 '-ㄱ' 구문의 실현 양상의 비교

전체 문헌	-ㅌㄷ 구문	-ㄱ 구문
ㄱ. 관계절	44/12.5	309/87.5
ㄴ. 피수식 명사가 주어	44/14.6	258/85.4
ㄷ.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2/3.8	51/96.2
ㄹ.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66/17.6	310/82.4
ㅁ. 제 3의 요소 개입	2/5.6	34/94.4

<표9> : -ㅌㄷ이 보문에서 실현되었을 때 관형사절의 서술어의 유형에 따른 실현 양상

	-ㅌㄷ 구문			
개별 문헌	瑜(7)	華(2)	金(2)	舊(11)
ㄱ. 동사	7/100	1/50	2/100	4/36.4
ㄴ. 형용사	0/0	0/0	0/0	2/18.2
ㄷ. 계사	0/0	1/50	0/0	5/45.4

9) 'ㄱ'의 용법을 살핌에 있어서도 '-ㄱㅅ-, -ㄱㅎ-' 등의 구성은 실제 용례 분석 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다.

<표10> : -ㅌㄷ이 관계절에서 실현되었을 때 관형사절의 서술어의 유형에 따른 실현 양상

	-ㅌㄷ 구문			
개별 문헌	瑜(12)	華(21)	金(5)	舊(6)
ㄱ. 동사	8/66.7	2/9.5	0/0	2/33.3
ㄴ. 형용사	4/33.3	19/90.5	5/100	4/66.7
ㄷ. 계사	0/0	0/0	0/0	0/0

<표11> : 전체 문헌에서의 관형사절의 서술어의 유형에 따른 실현 양상

	보문의 -ㅌㄷ 구문(22)	관계절의 -ㅌㄷ 구문(44)
ㄱ. 동사	14/63.6	12/27.3
ㄴ. 형용사	2/9.1	32/72.7
ㄷ. 계사	6/27.3	0/0

<표6-11>이 말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ᄉᆞᆫ'과 마찬가지로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이면 '-ㅌㄷ'이 실현되지 않는다.

(19) ㄱ. 鳥足ᄭᅳ{履ㄷㄱ} 所ㄷ 空 如ᄒᆞᄂᆞᆫ ᄒᆞᄂᆞᆯ(鳥足ᄋᆞ로 볼본 밧 空 다ᄒᆞᆫᄋᆞᆯ ᄒᆞ며)<華嚴14:09:09>

ㄴ. *鳥足ᄭᅳ{履ㄷㅌㄷ} 所ㄷ 空 如ᄒᆞᄂᆞᆫ ᄒᆞᄂᆞᆯ

둘째, '-ᄉᆞᆫ'과는 달리 '-ㅌㄷ'은 보문보다 관계절 구성에서 많이 실현된다.

셋째, '-ᄉᆞᆫ'과는 달리 '-ㅌㄷ'은 관계절 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단 이 때 엄밀히 말해 '-ㅌㄷ'이 아니라 '-ㄱㅌㄷ'이 실현된 경우이다.

(20) ㄱ. 我ㄱ 今ㅅㄱ 已ᄒᆞ 諸ㄱ 菩薩ᄅᆞ 爲ᄒᆞ 佛ᄉᆞ 往ᄒᆞᄉᆞ {修勿ᄆᆞㄱㅌㅊ} 淸淨行ㅣ 說ᄒᆞᄆᆞㅣㄱㅣㅣㅁ(나ᄂᆞᆫ 엳ᄒᆞᆫ사 모ᄃᆞᆫ 菩薩ㅅ 삼 부텨 往아기 닷ᄀᆞ시온낫 淸淨行ᄋᆞᆯ 니ᄅᆞ골온이라)<華嚴14:08: 23>

ㄴ. 仁ㅣ 亦ㅅㄱ 當ㅅ 於 此ㅣ 會ㅊ 中ᄒᆞᄉᆞ ㅅᄒᆞㅅ {修行ㅅ勿ᄆᆞㄱㅌㅊ} 勝功德ㅣ 演暢ㅅᄆᆞㅅ勿立(仁도 ᄯᅩᄒᆞᆫ 반ᄃᆞᆨ 이 會ㅅ 中앳 ᄒᆞ야 修行ᄒᆞ시온낫 勝功德을 演暢ᄒᆞ곡시셔)<華嚴14:08:24>

'-ㄱㅌㅊ'은 「구역인왕경」에 9번, 화엄경에 4번 전체 13회 나타나는데 보문과 관계절 구성에서 모두 실현된다.[10] 여기서 문제는 '-ㄱㅌㅊ'을 '-ㅌ

---

10) ① 관계절을 만드는 ㄱㅌㅊ-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
時十無色界ㅊㅈㄱ 量無ㅊㄱ {變ㅅㄱㅌㅊ}大香花ㅣ 雨ㄹㄱㅁ<舊仁02:14-15>
一切報ㅣ 盡ᄒᆞᄆᆞ{無極ㅅㄱㅌㅊ}悲ㅣㅅㄴㅋ가第一義諦ᄒᆞᄉᆞ<舊仁11:04-05>
百億萬土ㄱ 六大動ㅅᄆᆞㅌㅣㅅ가生ㅣ{含ㅅㄱㅌㅊ}[之]生ㄱ 妙報ㅣ 受ᄆᆞㅌㄱ ᄉᆞ<舊仁11:12>
相{無ㅊㄱㅌㅊ}第一義ㄱ 自無ㅊᄒᆞ他作無ㅊᄒᆞㅅ가因緣ᄇᆞ本ᄇᆞㅅ自ᄒᆞᄇᆞ<舊仁14:24-25>
餘ㅅㄱ 習ㅣㄱ 無明緣ᄉᆞ無明習相ㅣㄱ {故ㅊㅅㄱㅌㅊ}煩惱ᄉᆞㅅㅣ除ㅅㅋㅏㄹㄱㅅㄱ <舊仁11:01-2>
② 관계절을 만드는 ㄱㅌㅊ-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
我ㄱ 今ㅅㄱ 已ᄒᆞ 諸ㄱ 菩薩ᄅᆞ 爲ᄒᆞ 佛ᄉᆞ 往ᄒᆞᄉᆞ {修勿ᄆᆞㄱㅌㅊ}淸淨行ㅣ 說ᄒᆞᄆᆞㅣㄱㅣㅣㅁ<華嚴14:08:23>
仁ㅣ 亦ㅅㄱ 當ㅅ於此ㅣ會ㅊ中ᄒᆞㅊㅅᄒᆞㅅ {修行ㅅ勿ᄆᆞㄱㅌㅊ}勝功德ㅣ 演暢ㅅᄆᆞㅅ勿立<華嚴14:08:24>
③ 보문을 만드는 ㄱㅌㅊ
幻諦ㅊ法ㄱ 佛ㅣ出世ㅅ白ㄹㅌ{無ㅊㅋㄱㅌㅊ}前ᄒᆞᄉᆞ<舊仁14:02-03>
{解ㅅㄱㅌㅊ}心ᄒᆞᄉᆞ二不矢ㄱ ㅇㅣ見ㅏㄱㅣㅣㅁ<舊仁15:04>
五眼ㅣ{成就ㅅㅈㅅㅋㄱㅌㅊ}時十見ㅋㄱ 乃見ㄹㅌ所ᄒᆞ無ㅊㅋ가<舊仁15:15-18>
菩薩ㅣ{成佛ㅅㅈㄱㅌㅊ}時十煩惱ㅣ以ᄒᆞ 菩提爲ᄉᆞㅏᄒᆞㅊㅣ<舊仁15:18-19>
若能四攝法成就ㅅㅂㅌㅅㄱ 則衆生ㅋ十限ㅋ{無ㄱㅌㅊ}利ᄆᆞㅌㅅㄱ 與ㅅㅂㅎ가<華嚴14;12:07>
以或我ᄉᆞ壽者ᄉᆞㅅ仝{無ㄱㅌㅊ}門以ㅅㅌ가ㅅㅏᄒᆞ<華嚴14;17:13-14>

ㄷ'과 다르게 볼 것이냐의 여부인데 이에 대해 이장희(1995)에서는 '-ㅌㄷ'에 선행하는 서술어의 대부분이 [+상태성]인 반면 '-ㄱㅌㄷ'은 [-상태성]인 점을 들어 '-ㅌㄷ'은 단순히 '-ㄱㅌㄷ'에서 '-ㄱ'이 생략된 표기가 아니라 두 형태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표5-7>에 의하면 '-ㅌㄷ'이 보문에서 실현될 때에는 오히려 관형사절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가 더 많으며, '-ㄱㅌㄷ'과 결합하는 서술어 중 [+상태성]인 것도 있으므로 서술어의 유형별로 구분되었던 형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넷째, '-ㅁ'은 대부분 의존명사와 결합하며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자립명사를 꾸밀 수 있는 데 반해 '-ㄱ'은 자립명사와 결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하여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이고 관계절 서술어의 주어로 실현되었을 경우에도((21)-(22)) '-ㄱ'이 나타난다.

(21) 他人ㅋ 爲ㅁ {隨順ㅅㄱ} 敎誡ㅗ 敎授ㅗㅅㅁㄴ 說ㅅㅁㅅㄴ(他人의 爲호 隨順ᄒᆞᆫ 敎誡여 敎授여ᄒᆞᆯ 닐올ᄃᆞᆯ)<瑜03,05-,11>

(22) 若 常ㅣ 量ㅣ {無ㅁㄱ} 佛ㄴ 覩見ㅅ白ㅌㅁㅅㄱ(ᄒᆞ다가 샹녜 그지 업스신 佛을 覩見ᄒᆞᄉᆞᆸ낧 ᄃᆞᆫ)<華嚴14:11:14>

다섯째, 제 3의 요소의 개입 정도를 살펴본 결과 '-ㅌㄷ'의 경우보다 '-ㄱ'의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하여 '-ㄱ'과 '-ㅌㄷ'이 동시에 실현된 구문의 배열 순서는 '-ㄱ'이 먼저 나오고 '-ㅌㄷ'이 뒤에 나온다. 이는 '-ᄉᆞㄷ/-ㅁ'의 실현 양상과 다른 것으로 '-ㅁ' 관형절의 경우 '-ㅁ' 관형절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제 3의 요소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3)ㄱ. 量 無ㄷㄱ 變ㅅㄱㅌㄷ 大香花ㄴ 雨ㄹㄱㅁ(그지 업슨 변혼ᄂᆞᆺ 大香花ᄅᆞᆯ 雨혼 ᄃᆡ) <舊仁02:14-15>

ㄴ. 已ㅋ 有能ㅣㄱ 得樂ㅅᄉᆞㄷ 方便ㄴ 信ㅅㅎㅅㄱ(스싀 有能인

得樂호릿 方便을 信ᄒᆞ져ᄒᆞ며)<瑜05,01-,06>

마찬가지로 '-ㅌㄷ'과 '-ㄱ'이 실현되는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ㅌㄷ'과 '-ㄱ'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환경

①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

그리고 '-ㅌㄷ'과 '-ㄱ'이 모두 실현되는 환경은 ①을 제외한 모든 환경이다.

<표12>는 '-ᄉᆞㄷ, -ㄲ, -ㅌㄷ, -ㄱ'이 석독 구결 전체 문헌에 나타난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표12> : 석독 구결 전체 자료에 나타난 -ᄉᆞㄷ, -ㄲ, -ㅌㄷ, -ㄱ의 실현 양상

전체 문헌	-ᄉᆞㄷ구문(122)	-ㄲ구문(77)	-ㅌㄷ구문(66)	-ㄱ 구문(371)
ㄱ. 보문	98/80.3	4/5.2	22/33.3	62/16.7
ㄴ. 관계절	25/20.5	73/94.8	44/66.7	309/83.3
ㄷ. 피수식 명사가 주어	25/100	32/43.8	44/100	258/83.5
ㄹ.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	0/0	41/56.2	0	51/16.5
ㅁ.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	122/100	28/36.4	66/100	310/83.6
ㅂ.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	0/0	49/63.6	0/0	61/16.4
ㅅ. 제 3의 요소 개입	5/4.1	1/1.3	2/3.0	34/9.2

첫째, '-ᄉᆞㄷ/-ㄲ'의 실현 양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보문이나 관계절 모두 '-ㅌㄷ'보다 '-ㄱ'의 빈도수가 높다. 또한 '-ᄉᆞㄷ'이 보문 구성에 많이 나타나는 반면 '-ㅌㄷ'은 오히려 관계절 구성에서의 실현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형사절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제3의 요소의 개입이 많은 경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ᄉᆞㄷ>-ㅌㄷ>-ㄲ'이다. 이러한 사실은 '-ㄲ'

이 관형사형어미 가운데 형식 명사와의 결합력이 가장 높으며 또 형식명사와의 결합체가 하나의 문법 단위로 굳어진 경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보문+尸+자립명사'는 나타나지 않지만(24ㄱ) '보문+ㄱ+자립명사'는 실현된다.(24ㄴ)

(24)ㄱ. 若ㄴ {*飯食ㅅ尸} 時十ㄱ
ㄴ. 瓔珞ㄴ {著ㅅ去ㄱ} 時ㅣ十ㄱ (瓔珞ᄋᆞᆯ 著ᄒᆞ건 ᄲᅳ여권)<華嚴14; 03:01>

넷째, '-ㄱ'과는 달리 '-ㅌㄴ'의 경우 관형사절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동격의 의미 관계가 실현되는 경우가 없다.

(25)ㄱ. {[於]三位ㅢㄱ} 樂位ㅅ 苦位ㅅ 不苦不樂位ㅅㅋ十 (三位인 樂位와 苦位와 不苦不樂位와아기) <瑜30,02-,05>
ㄴ. *{[於]三位ㅢㅌㄴ} 樂位ㅅ 苦位ㅅ 不苦不樂位ㅅㅋ十

한편 <표13>은 '-ᄉᆞㄴ, -尸, -ㅌㄴ, -ㄱ, -ㄱㅌㄴ'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 때의 선어말어미는 관형사절에서 실현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는 특정 환경에서만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尸'이 '-ナ-'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의존명사 'ㅅ'를 수식할 경우에 한해서인데 이 때에도 'ナ尸ㅅ'의 형태로만 실현된다. 또한 '-ㅅㄷ-'의 경우도 '-ㄱ'과 결합하는 환경은 '-ㄱ'이 연결어미로 실현되었거나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환경에서이므로 위의 도표에서 제외되었다.

<표13> : 선어말어미와의 결합관계

	ᄉᆞᆫᄀᆞ	ᄆᆞ	ᄇᆞᆫᄀᆞ	ᄀᆞ	ᄀᆞᄇᆞᆫᄀᆞ
-ㅅ(ᄀᆞ)-	○	○	○	○	○
-勿ᄀᆞ-	×	○	×	○	○
-白ᄀᆞ(ㄹ)-	○	×	×	○	×
-ㄴ(勿)-	○	○	○	○	○
-白口ㅅㄴ-	×	×	×	○	×
-ᄃᆞㅅㄴ-	×	×	×	×	○
-ᄂᆞ-	○	△	×	○	×
-ᄃᆞ-	×	×	○	○	○
-白ᄃᆞ-	×	×	×	○	×
-ㅁ-	×	×	×	×	×
-ᄇᆞ-/-ᄐᆞ-	×	×	×	×	×
-ᄎᆞ-	×	×	×	×	×

<표13>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ᄂᆞ-'와 '-ᄃᆞ-'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형태를 동일한 형태소로 보는 견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석독 구결에서 실현된 '-ᄉᆞᆫᄀᆞ/-(ᄀᆞ)ᄇᆞᆫᄀᆞ'의 구문적 특성을 '-ᄆᆞ/-ᄀᆞ'이 실현된 경우와 대비시켜 살펴 보았다. 본론을 통해 '-ᄉᆞᆫᄀᆞ'과 '-ᄆᆞ', '-ᄇᆞᆫᄀᆞ'과 '-ᄀᆞ'이 실현되는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동일하게 'ᄀᆞ'이 실현되었지만 '-ᄉᆞᆫᄀᆞ'과 '-(ᄀᆞ)ᄇᆞᆫᄀᆞ'의 실현 양상이 또한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ᄉᆞᆫᄀᆞ'과 '-ᄇᆞᆫᄀᆞ'의 공시적인 형태소 분석과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래 몇 가지 사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모든 '-ᄇᆞᆫᄀᆞ/-ᄀᆞᄇᆞᆫᄀᆞ/-ᄉᆞᆫᄀᆞ'에 의존명사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ㅌㄴ/-ㄱㅌㄴ/-ᄉㄴ'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ᄉㄴ'과 '-ㅌㄴ'의 공시적인 분석과 역사적인 변화

4.1 공시적인 분석

'-ᄉㄴ'과 '-ㅌㄴ'에 대한 공시적 분석은 (26)의 세 가지 방법 정도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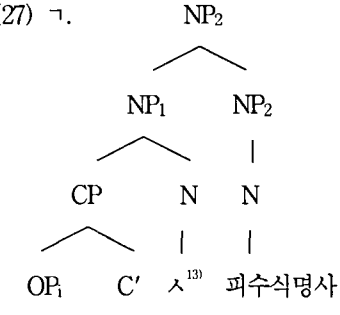
(26) ㄱ. '-ᄉㄴ'과 '-ㅌㄴ'을 분석하지 않는 방법
ㄴ. 동명사어미+의존명사+속격조사
ㄷ. 동명사어미+속격조사

우선 (26ㄱ)의 경우는 '-ᄉㄴ'과 '-ㅌㄴ'의 내부 형태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15세기 이후 어간과 결합했던 관형사형어미 '-ᄉㄴ'과 '-ㅌㄴ' 전체가 사라진다는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 형태는 얼마든지 그 형태가 바뀌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본 바대로 '-ᄉㄴ'과 '-ㅌㄴ'은 그 실현 빈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 어떤 환경에서는 '-ᄉㄴ'과 '-ㅌㄴ'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 나타남으로써 '-ㄱ, -ᄆ'과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변하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ᄉㄴ'과 '-ㅌㄴ'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것의 형성에 대해서도 논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문법사적으로 '-ᄉㄴ'과 '-ㅌㄴ'의 형성이나 변화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26ㄱ)으로서의 분석 가능성은 배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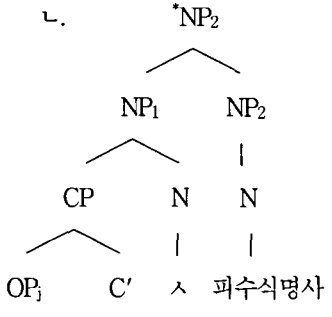
그렇다면 (26ㄴ)처럼 '-ᄉㄴ'에 의존명사가 실현된 구성으로 분석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선 '-ᄉㄴ'에 의존명사를 상정하는 것은 남풍현(1996

가, 1996나)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ᄉᆞᄂᆞᆫ'의 구성 자체가 그것에 의존명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속격조사에 선행하는 성분이 의존명사가 되든 동명사형이 되든 상관없기 때문이다.[11] 이에 본고는 앞서 (3)의 예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관계절 구문에서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ᄉᆞᄂᆞᆫ'에 의존명사가 실현되었음을 주장해 보고자 한다. 우선 (3)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ᄉᆞᄂᆞᆫ'에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것을 막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ᄂᆞᆫ'에는 없는 제약이 '-ᄉᆞᄂᆞᆫ'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두 형태의 분석이 동일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자는 의존명사가 실현되지 않은 반면 후자는 의존명사 '이'가 실현되었다는 차이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 아래 (27)의 구조를 통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12]

(27)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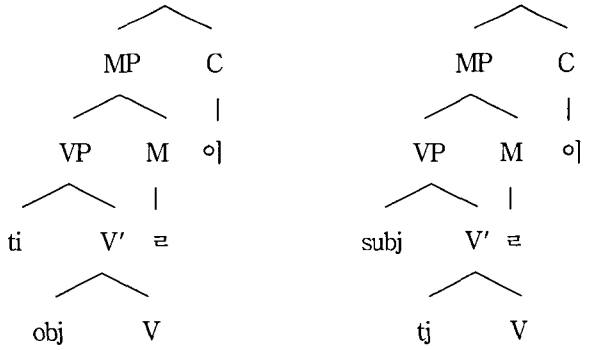
ㄴ.



11) 단지 이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의존명사+ㅅ' 구성은 의존명사 '바(所)'만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향가에서도 의존명사 '이'와 속격조사의 결합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존명사와 속격조사의 결합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므로 의존명사 '이' 자체의 쓰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12) 이와 관련된 통사적 논의에 대해서는 김의수 선생(고려대 박사수료, 통사론 전공)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13) 격조사의 범주를 N으로 상정하는 것은 시정곤(1998)을 따른 것이다.



(27ㄱ)은 피수식명사가 관계절의 주어인 경우이며 (27ㄴ)은 목적어인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ᄉᆞᆫ'은 'ㄹ+이+ㅅ'로 분석된다. 이 때 'ㄹ'은 동명사어미로 관계절의 시상을 나타내며 '이'는 보문소이고 'ㅅ'은 명사절에 붙는 속격 표지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27ㄱ)에서는 주어가 관계화되었고 (27ㄴ)에서는 목적어가 관계화되었다. 두 경우 모두 공운용소(null Operator: 줄여서 OP)가 존재하는데,[14] (27ㄱ)에서는 주어 자리로부터 (27ㄴ)에서는 목적어 자리로부터 기저생성되어 이동한 것이다. 이동한 공운용소의 착지점은 두 경우 모두 [Spec, CP]이며 그것은 핵인 보문소(Complementizer)와 자질을 비교해 야 한다. 이때 (27)의 보문소(Complementizer)인 '이'가 그 어휘적 속성으로 대상(Theme)이라는 의미역을 가진다고 가정한다.[15] 이러한 가정에 따를 때, '이'의 지정어에 만일 주어가 오게

14) 국어의 관계절 분석에는 피수식명사의 직접 이동을 가정하는 견해, 공운용소의 이동을 가정하는 견해, PRO/pro를 설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공운용소의 이동을 가정하기로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본고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관계절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김일환(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의존명사가 본유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의미역을 본유적으로 가진다고 하는 가정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있어서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의존명사들이 존재함을 생각할 때 의존명사가 가지는 의미역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령 '수, 지, 리, 나위' 등

되면 'Agent-Theme'이 되어 의미역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목적어(Theme)가 오면 'Theme-Theme'가 되어 의미역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16] 따라서 이 경우 오로지 주어에 해당하는 공운용소의 이동만이 허가되는 것이다.[17]

'-ᄉᆞᄂᆡ'에 의존명사를 상정할 가능성이 큰 또 다른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ᄉᆞᄂᆡ'이 보문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ᄉᆞᄂᆡ'에 의존명사가 실현되었다면 이 의존명사는 유정성과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선후행 명사의 의미적 관계가 소유-피소유의 의미로 실현되지도 않았으며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대해 보충어 논항으로 실현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ᄇᆞᄂᆡ'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승재(1993)에서는 '-ᄇᆞᄂᆡ'을 '닛'으로 보고 '동명사어미+속격조사'로 분석했다가 심재기·이승재(1998)에 이르러 '낫'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면서 '동명사어미+처격조사+속격조사'로 분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ᄇᆞ'를 'ᄂᆞ'가 아닌 '나'로 읽을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동명사어미가 '처격조사+속격조사'의 구성에 선행한다는 사실도 15세기 한글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용법이라는

은 오로지 주어로만 쓰이고 '대로, 듯, 체 만큼, 뻔, 줄'은 부사어로만 쓰인다. 어떠한 명사가 특정한 성분으로만 쓰인다는 것은 그것의 어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의존명사가 자신의 쓰임을 제약하는 경우이지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는 그것이 이끄는 관계절에서 주어 성분만을 관계화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16) 이러한 의미역 충돌은 다음의 제약 (i)로 설명될 수 있다.

(i) 의미역 실현 제약 : 단일한 투사 내부에서 동일한 의미역이 두 개 이상 실현될 수 없다.

제약 (i)은, 단일절 내부에 동일한 의미역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논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역 준거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i)은 단일한 투사만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절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역 준거와는 구별된다.

17) 관계절 내부의 OP와 피수식명사 간의 의미 해석은 LF에서 해석 규칙(construal rule)에 의해 이루어진다(Chomsky 1981 참조).

점에서 무리가 있다. 또한 이승재(1998)에서는 'ㅌ'가 의존명사가 아닌 증거로 이것이 '-ㄲ'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모든 의존명사가 '-ㄱ', '-ㄲ' 모두의 수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세기에 의존명사 '닷(탓), 곧' 등은 관형사형 어미 '-ㄴ'의 수식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ㅌㄷ'을 분석함에 있어 의존명사가 실현된 (26ㄴ)으로 보지 않는 것은 향가나 음독구결자료, 15세기 이후 한글자료에서 문증되지 않는 의존명사 'ㅌ(ᄂᆞ)'를 상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ㅌㄷ'은 오히려 (27ㄷ)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크다. 즉 속격조사가 동명사어미에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남풍현(1996)에서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남풍현(1996)에서는 'ㄴㅅ'의 연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ㄱㄷ'이 아니라 '-ㅌㄷ'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경기체가의 예는 '동명사어미+속격조사 ㅅ'의 결합이 가능했으며 'ㄴㅅ'의 연쇄도 가능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18] 더욱이 '-ㅌㄷ'은 '-ᄉᆞㄷ'과는 달리 관계절 실현에 있어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 가능하므로 굳이 피수식 명사의 실현 양상에 대한 제약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19]

---

18) 여기서 경기체가의 예를 고려시대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고형을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시대의 언어 실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자료에서는 이미 'ㅅ'이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ㅅ'은 고형을 보여주는 표기로 볼 가능성이 크다.

19) 여기서 '-ㅌㄷ'이 '동명사어미+속격조사'이며 'ㄴㅅ'의 연쇄가 가능했다면 왜 동명사어미 '-ㄱ'에 'ㄷ'이 결합한 '-ㄱㄷ'으로 표기되지 않았냐고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관형사절에서 실현된 '-ㄱ'은 이미 관형사형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형사형어미 '-ㄱ'과는 구별하기 위해 속격조사와 결합한 동명사어미로 'ㅌ'를 표기한 것이 아닐까 한다.

(28) 위 醉호景 긔 엇더ᄒᆞ니잇고<한림별곡 4장>
내외옫景 긔 엇더ᄒᆞ니잇고<한림별곡 2장>

그런데 '-ㅌㄷ'에 의존명사를 상정하지 않을 때 문제되는 것은 'ㅌ'가 의존명사처럼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 (29)~(30)의 예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29)와 (30)의 용례를 들어 의존명사 'ㅌ'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 그러나 (29)와 같은 예는 구역인왕경에만 나타난다는 점, 구역인왕경에서도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때의 'ㅌ'를 의존명사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29)의 경우의 의존명사처럼 보이는 'ㅌ'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ㅌㄷ'의 'ㅌ'가 (29)의 'ㅌ'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30)에 나타난 '-ㄱㅌㄷ'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때의 'ㅌ'를 의존명사로 보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ㄱㅌㄷ'을 의존명사가 실현된 구성으로 보는 논의에서는 모든 '-ㅌㄷ'을 '-ㄱㅌㄷ'의 'ㄱ' 생략 표기로 보는데 수적으로도 5배 정도 더 많이 실현되는 '-ㅌㄷ'(66)에 모두 'ㄱ' 생략 표기를 상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21] 그렇다면 (29)의 '-ㄱㅌ'나 (30)의 '-ㄱㅌㄷ'에 의존명사를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모든 '-ㅌㄷ'에 'ㄱ'이 빠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ㄱㅌㄷ'에 기능이 없는 'ㄱ'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한다.[22] 그리고 이처럼 'ㄱ'을 첨기한 것은 동명사어미로서의

20) 여기서 'ㅌㄷ'이 의존명사와 결합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ㅌㄷ'에 의존명사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일 뿐 'ㅌㄷ'에 의존명사가 실현된 것이 의존명사와 결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일 수 없다는 점에서 'ㅌㄷ'의 의존명사 실현을 부정하는 반증이 되지는 못한다.

21) 문법 형태의 변화는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만 여기서 생략표기를 상정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의존명사 'ㅌ'를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법적 설명이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에서 생략보다는 첨기로 본 것이다.

'-ㄱ'의 기능을 좀 더 분명히 해 주기 위한 것이다.

(29) ㄱ. 百億須彌寶花ㄴ 化ᄉᆞᆫᄂᆞᆫᄐᆞ 有ᄂᆞᆫᄀᆞᄉᆞ(百億 須彌 寶花ᄅᆞᆯ 化ᄒᆞ져 ᄒᆞᆫᄂᆞ 잇견여) <舊仁02:02-3>

ㄴ. 波斯匿王ㄱ 言ᄒᆞᆫᄃᆞ 第一義ᄂᆞ 中ᄋᆞ十 世諦 有ᄂᆞᄋᆞᄉᆞᄅᆞᄉᆞᄋᆞ 不ᄉᆞᄅᆞᄅᆞᄀᆞᄐᆞᄋᆞ(波斯匿王ᄋᆞᆫ ᄂᆡᄅᆞ샬 第一義ㅅ 中아기 世諦 잇다 ᄒᆞ고오리아 안디이온ᄂᆞ아)<舊仁14:18>

(30) 解ᄉᆞᆫᄀᆞᄐᆞᄂᆞ 心ᄋᆞ十 二 不ᄉᆞᄀᆞᄋᆞᄂᆞ 見ᄐᆞᄀᆞᄅᆡᄆᆞ (解ᄒᆞᆫᄀᆞ ᄆᆞᄉᆞᆷ아기 둘 안디인 둘 보눈이라)<舊仁15:04>

한편 석독 구결자료에서 'ᄉᆞᄂᆞ'외에도 '-ᄃᆞᄒᆞ, -ᄉᆞᄒᆞ'이 실현된다는 사실이 '-ᄉᆞᄂᆞ'의 존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ᄉᆞᄂᆞ'의 경우 '동명사어미+속격조사'로 본다면 '-ᄉᆞᄒᆞ'도 동명사어미+속격조사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석독 구결에서는 '동명사어미+속격조사'가 '-ᄃᆞᄒᆞ'외에도 '-ᄉᆞᄒᆞ'가 실현되어 둘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ᄐᆞᄂᆞ'의 경우는 '-ᄀᆞᄒᆞ'만 실현되며 '-*ᄀᆞᄐᆞᄒᆞ'가 나타나지 않는다. 'ᄐᆞ'가 의존명사라면 '-ᄀᆞᄒᆞ' 뿐만 아니라 'ᄐᆞ'가 실현된 '-ᄀᆞᄐᆞᄒᆞ'도 실현될 법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ᄐᆞ'를 의존명사로 상정하기 어려움을 말해 주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또한 이장희(1995)에서는 화엄경의 다음 예를 들어 동명사어미로서의 'ᄉᆞ'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31)~(33)의 'ᄉᆞ'는 모두 명사가 실현되는 환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때의 'ᄉᆞ'를 '동명사어미+의존명사'의 구성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보아야 문맥적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31) 無與等慧 不可量慧 不可說慧ㅣᄂᆞᄉᆞᄂᆞ 得ᄀᆞ (無與等慧 不可量慧

22) 이에 대해서는 이승재(1998)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不可說慧여호리를 得며/같을 이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말할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으며) <華嚴14;1:10-15>

(32) [於]塔ᄂᆡ 頂禮ᄒᆞ白ᄉᆞᆨᄀᆞᆡ ᄒᆞᆫᄀᆞ 當願 衆生 一切 天人ᄋᆡ 能ᄋᆞᆺ 頂ᄂᆡ 見ᄒᆞᄉᆞᆷ 無ᄇᆞᆮᄒᆞᆫ (탑을 정례ᄒᆞᄉᆞᆸ건다긴 當願 衆生 一切 天人이 어디? 頂을 보아리 없ᄂᆞ써/탑에 정례할 때에는 일체의 天人이 능히 정수리를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華嚴14;8:08>

(33) 塔ᄂᆡ 遶ᄒᆞᄆᆞᆫ 三帀ᄂᆡᄒᆞᄉᆞᆨᄀᆞᆡ ᄒᆞᆫᄀᆞ 當願 衆生 勤ᄀᆞᆫ 佛道ᄂᆡ 求ᄒᆞᄆᆞᆫ 心ᄒᆞᆷ ᄒᆞᆫ 懈歇ᄑᆞ 無ᄇᆞᆮᄒᆞᆫ (탑을 遶홇ᄃᆡ 三帀을 ᄒᆞ건다긴 當願 衆生 브즈런(붓) 佛道를 求홇ᄃᆡ ᄆᆞᅀᆞᆷ아기 懈歇ᄫᅥ 없ᄂᆞ써/탑을 돌되 세 번 돌 때에는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되 마음에 게으르고 나태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華嚴14;8:10>

4.2 통시적인 변화

앞서 '-ᄉᆞᆷᄀᆞ'과 '-ᄇᆞᆮᄀᆞ'의 공시적인 분석을 전자는 의존명사가 실현된 것으로 후자는 의존명사가 실현되지 않고 'ᄀᆞ'이 동명사어미와 직접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ᄉᆞᆷᄀᆞ'과 '-ᄇᆞᆮᄀᆞ'의 변화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이처럼 '-ᄀᆞ/-ᄑᆞ' 외에 '-ᄉᆞᆷᄀᆞ, -ᄇᆞᆮᄀᆞ'의 실현이 공시적으로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ᄀᆞ/-ᄑᆞ'과 '-ᄉᆞᆷᄀᆞ, -ᄇᆞᆮᄀᆞ'이 실현되는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환경에 있어서는 각각의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피수식 명사가 의존명사일 경우 관형사절에서 '-ᄉᆞᆷᄀᆞ'과 '-ᄇᆞᆮᄀᆞ'의 실현은 불가능한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ᄉᆞᆷᄀᆞ' 안에 이미 의존명사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어에 '속격조사+의존명사'의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의존명사가 실현되지 않은 '-ㅌㄷ' 구성에서도 의존명사가 피수식명사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가능성은 배제되며 남은 가능성은 '속격조사+의존명사'의 구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관형사절에서 '-ㄱ/-ㄲ'외에도 '-ᄉᆞㄷ'과 '-ㅌㄷ'이 실현되었던 것은 '-ㄱ/-ㄲ' 자체가 가진 강한 명사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ㄱ/-ㄲ'의 명사성으로 인하여 뒤에 자립명사가 올 때에는 속격조사와의 결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속격조사의 결합 없이도 바로 피수식 명사를 꾸미는 경우의 '-ㄱ/-ㄲ'은 이미 관형사형어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ㄲ' 뒤에 자립명사의 실현이 제약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에 '명사+명사'의 구조는 성립되나 동명사어미가 실현된 명사형의 명사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는 15세기 이후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15세기의 동명사어미 '-옴/-움'이 실현된 구성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 예가 없으며 '-오-/-우-'의 기능이 사라지고 '-음'이 동명사어미로 실현되었을 때에도 이 구성 뒤에 명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사실은 국어에 동명사어미가 실현된 명사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석독 구결

23) 단지 현대국어의 '-기'의 경우 '빨리 달리기 대회' 구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때의 '-기' 구성은 동명사어미라고 할 수 없다. '빨리 달리기'는 이미 파생명사의 자격으로 대회와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동명사어미가 실현된 구성이라면 의미론적 공기 제약을 떠나서 피수식 명사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의 분포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빨리 달리기'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는 '대회, 시합' 정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동명사어미가 실현된 명사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구조적인 부담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명사어미 '-ㄱ/-ᄆ'에 다시 속격조사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동명사어미가 점차 관형사형어미로의 기능으로 바뀌면서 '-ㅌㄷ'의 동명사어미 'ㄱ'은 굳이 속격조사와의 결합이 불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ㅅ'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24] 마찬가지로 '-ㅌㄷ'이 없어지면서 'ㄱ'의 관형사형어미로의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존명사가 실현되었던 '-ᄉᆞᆫㄷ'은 의존명사 '이'가 내포문의 목적어에 대해 가졌던 제약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것의 실현이 불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의존명사가 속격조사와 결합하는 구성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ㅌㄷ' 구성의 변화도 가세하여 '-ᄉᆞᆫㄷ'의 형태 변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도 석독구결 당시 속격조사의 실현 없이 자립명사와 바로 결합할 수 있었던 '-ㄱ/-ᄆ'은 동명사어미라기보다는 이미 관형사형어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ㅌㄷ'에 실현된 'ㄷ'의 성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명사어미+속격조사'의 실현이었던 '-ㅌㄷ'의 'ㄷ'은 15세기 이후 한글자료의 '-닷, -렷' 등과 같이 종결어미와 결합한 'ㅅ'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25] 기존의 논의에서는 15세기의 '-닷, -렷' 등의 'ㅅ'을 속격조사의 일종으로 처리하거나 관형격 표지 등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한 명칭 문제를 떠나서 이 때의 'ㅅ'은 사실 일반적으로 명사와 결합한

24) 'ㅌㄷ의 'ㅣ'의 'ㅅ'이 없어지는 데에 음절말 'ㅅ'의 음가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 이와 관련하여 이장희(1992)에서는 '-ᄉᆞᆫㄷ'과 'ㅌㄷ'의 'ㄷ'을 15세기의 '닷, 렷' 등의 'ㅅ' 관형어미와 연결시켜 소멸된 'ㅅ' 관형어미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관형어미라면 용언어간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동명사형어미 뒤에서만 실현되므로 관형어미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때의 'ㅅ'을 관형어미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관형어미와는 구별되는 명칭이 있어야 한다.

'ㅅ'과는 성격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때의 'ㅅ'을 보문소라고 한 것도 일반적인 명사와 결합했던 속격조사 'ㅅ'과는 차별적인 기능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때의 'ㅅ'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다. 이에 본고는 이 때의 'ㅅ'의 기원을 '-ㅌㄷ'의 'ㄷ'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ㅌㄷ'의 'ㄷ'은 동명사어미와 결합한 것이고 '-닷, -렷'의 'ㅅ'은 종결어미와 결합한 것인데 모두 어미와 결합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26] 즉 '-닷, -렷'의 'ㅅ'이나 'ㅌㄷ'의 'ㄷ'은 어미를 가지는 명사구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일반적인 명사와는 차별적인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석독 구결에서 관형사절 구성에서 실현되었던 '-ㅌㄷ/-ᄉㄷ'과 '-ㄱ/-ᄇ'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ㅌㄷ/-ᄉㄷ'과 '-ㄱ/-ᄇ'이 나타나는 환경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경우가 실현되는 빈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능의 차이를 밝혀 보고자 했다. 본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독 구결 표기 당시의 화자는 보문과 관계절에 대한 구분 인식이 어느 정도 존재했으며 이는 '-ㄱ, -ㅌㄷ'의 경우보다는 '-ᄇ, -ᄉㄷ'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 '-ㅌㄷ/-ᄉㄷ'이 관계절로도 실현되고 보문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래 보문은 '-ᄉㄷ'의 실현이 일반적인데 피수식명사가 의존명사일 경우 보문 구성을 만드는 '-ᄉㄷ'의 실현을 막아 대신 '-ᄇ'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수식 명사가 자립명사로 실현되었을 경

26) 여기서 'ㅌㄷ'의 'ㄷ'과 '-닷, -렷, -랏'의 'ㅅ'의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15세기의 '-닷, -렷, -랏' 구문은 모두 보문으로 실현되었지만 'ㅌㄷ' 구문은 관계절로도 실현되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ㄴ우 보문 구성에서 '-ㅣ'이 실현되는 예가 없다는 사실, 즉 보문구성에서 '*-ㅣ+자립명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원래 보문 구성은 '-ㅣ'이 아니라 '-ᄉᆞᆫ'을 통해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째, 보문 구성에서 '-ㄱ+자립명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ㄱ, -ㅌᆞᆫ'의 경우 이미 보문과 관계절을 구분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석독 구결 당시 '-ㄱ, -ㅣ' 이외에 '-ㅌᆞᆫ'과 '-ᄉᆞᆫ'이 관형사절에서 실현되었던 것은 '-ㄱ/-ㅣ' 자체가 가진 강한 명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어에 동명사어미가 실현된 명사구가 자립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속격조사와의 결합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관형사절에서 피수식 명사를 수식했던 '-ㄱ, -ㅣ'은 이미 동명사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어미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관계절에서의 실현 양상을 통해 '-ᄉᆞᆫ'은 의존명사가 실현된 것이고 '-ㅌᆞᆫ'은 의존명사가 실현되지 않은 '동명사어미+속격조사'의 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ㅌᆞᆫ'이 관계절 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예가 존재한다는 점, 음독 구결 자료나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ㅌ'와 관련된 의존명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분의 '-ㅌᆞᆫ'이 보문이 아니라 관계절 구문에서 실현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ᄉᆞᆫ'이 관계절 구성에서 실현될 때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예가 없는 것이 우연의 공백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문제이다. 또한 이를 설명하기 위해 '-ᄉᆞᆫ'에 의존명사 '이'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완진(1957), 「-n, -l 동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 2호.

김일환(1996), 「국어의 관계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남풍현(1996가),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ㅁ/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_____(1996나), 「『금광명경』 권삼 석독구결에 나타난 ㅁ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96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_____(1998), 「『유가사지론』(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_____(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시정곤(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원리』, 한국문화사.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심재기 · 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이장희(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ㄷ'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 103~120.
황국정(2000), 「속격어미가 실현된 명사구 구성에 대해」, 『제22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부록

관형사절을 만드는 ㅌ七/今七과 ㄱ/尸의 색인

「瑜伽師地論」

▪관계절을 만드는 今七ㅡ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

四種 過失し 遠離ン氵ホ 而ㅠ {聽法ン今七} 者し 名下 正聞法ナノチ丨 <04,10-,14>

又 涅槃し 緣ン氵 而ㅠ {聽法ン今七} 者ラ十 十法リ 轉ノ尸ム<04,19-05,01>

又 正方便ㅠ 諸想し {修ン今七} 者ㄱ<12,18-13,03>

一十ㄱ 斷し 樂尸 {不多ン今七} 同梵行者し<13,08-,15>

能カ 修定方便し {宣說ン今七} 師リ 過失 [有]ムノ尸ム<13,08-,15>

自ㅠ 悔除ンカ [於]能カ {擧罪ン今七} 同梵行者ラ十<17,10-,17>

是 [如]支 精勤ヲ 善品し {修ン今七} 者ㄱ<18,01-,08>

能カ 現觀し {障ン今七} 我慢 亂心し 便ㄎ 永氵 斷滅ンロ<23,18-,23>

謂ㄱ 若 正說法ナ 若 {正聞法ナノ今七} 二種し 摠ヲ 名下 聞正法圓滿ナノチ丨<04,06-,10>

二者 歌舞倡伎ナ 笑戲歡娛ナ 遊從掉逸ナ {親愛聚會ナノ今七} 種種七 世事し 棄捨ノㄱ入ㅠ<17,05-,10>

▪보문을 만드는 今七

四種七 正法しㄷ {受用ノ今七} 因緣 現前ン氵ホ<03,11-,15>

如來尸 弟子リ 生圓滿し 依氵 {轉ン今七} 時ナ十<04,15-,19>

二 有功德し 信ンヲ 三 已ラ 有能リㄱ {得樂ノ今七} 方便し 信ンヲンカ<05,01-,06>

謂ㄱ 法し {聽聞ン今七} 時ナ十 自他し 饒益ンヲ<05,17-,22>

正行し {修ソ令セ} 時ニ十<05,17-,22>
正法行し {修習ソ令セ} 時ニ十<05,23-06,07>
若 無餘依涅槃界セ 中ラ十 {般涅槃ソ令セ} 時し 名下<06,07-,13>
又 能カ 彼し {對治ソ令セ} 有セ丁 所セ 善法し 修集ソ [爲]ム<07,11-,16>
一十丁 在家位ム 二 出家位ム 三 遠離閑居ソラホ 瑜伽し {修ノ令セ} 位ムリ|<08,01-,04>
一十丁 常リ 方便ゝ 善法し {修ノ令セ} 所作リ丁ニ<08,12-,19>
能カ 隨ノ 樂し {愛味ソ令セ} 一切 心識し 制伏ソき<08,12-,19>
二 [於]无戲論涅槃ラ十 {信解愛樂ノ令セ} 所作リ丁ニ<08,12-,19>
三 [於]時時中ラ十 聚落ラ十 遊行ソラホ {乞食ノ令セ} 所作リ丁ニ<08,19-09,02>
四 [於]遠離處ラ十 {安住ノ令セ} 所作リ丁ニ<08,19-09,02>
我ゝ {[於]彼正審觀察ノ令セ} 心 一境位ラ十 當ハ 障导し 作ヘリ尸 勿ノ干丁リラセ|ソ尸矢|<08,19-09,02>
又 [於]遠離閑居ソラホ {方便作意ノ令セ} 位セ 中ラ十 當ハ 知ヲ|<09,11-,16>
本所作事ラ十 {心散亂ノ令セ} 性ム<10,02-,12>
本所作事ラ十 作用し {趣ノ令セ} 性ム<10,02-,12>
方便作意ラ十 善巧 {不ハノ令セ} 性リ丁 恭敬ソラホ<10,02-,12>
二種 不淨想し {修ノ令セ} 中ラ十 當ハ 知ヲ|<10,08-15>
三 [於] 師長し 恭敬ソラ 往ソラホ {請問ノ令セ} 中ラ十<10,15-,23>
[於]常リ 諸 善法し {修習ノ令セ} 中ラ十<10,21-11,2>
此 義セ 中ラ十 意丁 法し {緣ソ令セ} 光明し 以ホ 境界 [爲]ミラ <11,02-,10>
謂丁 方便ゝ 止觀品し {修ソ令セ} 時十セ [於]諸法中ラ十<11,02-,10>
是 [如]ま 疑リ 隨逐ソ丁入ゝ 故カ 能カ 疑し {遣ノ令セ} 因緣し 障导ソ尸入ゝ<11,21-12,01>
心ラ十 恐怖し 懷き 瞋恚 與セ 俱ソラ 其心 {劫弱ソきノ令セ} 二所治セ

法リカ<12,01-,07>
此ㄱ [於]寂靜ヲ {正思惟ンヤセ} 時ニ十<12,07-,16>
所治法シ {斷滅ンヤセ} 欲 [有]ムヲ<12,18-13,03>
故ノ 領受 能 {不ハノヤセ} 過失リカ<13,08-,15>
故ノ 領受 能 {不ハノヤセ} 過失リカ<13,08-,15>
多リ 利養 恭敬シ {求ノヤセ} 過失リカ<13,15-,19>
喜足シ 知尸 {不ハノヤセ} 過失リカ<13,15-,19>
諸事務 {多ノヤセ} 過失リカ<13,15-,19>
故ノ 加行シ {棄捨ノヤセ} 過失リカ<13,15-,19>
他 種種ヒ 障导リ 生起ノ尸入シ {爲ハノヤセ} 過失 [有]ムカ<13,19-14,01>
[於]寒熱等ンㄱ 苦ミ十 堪忍 能 {不ハノヤセ} 過失 [有]ムカ<13,19-14,01>
領受教誨シ 能 {不ハノヤセ} 過失 [有]ムカ<13,19-14,01>
[於]教ミ十 顚倒 {思惟ンヤセ} 過失 [有]ムカ<13,19-14,01>
[於]所受ヒ 教ミ十 {忘念ノヤセ} 過失 [有]ムカ<14,01-,06>
在家 出家ハ {雜住ノヤセ} 過失 [有]ムカ<14,01-,06>
五 失相應ンㄱ 臥具シ {受用ノヤセ} 過失 [有]ムア矢リㄱ ニ<14,01-,06>
故ノ {不正尋思ノヤセ} 過失 [有]ムカ<14,06-,11>
身 沈重ンミホ 堪能ノア 所 {无ノヤセ} 過失 [有]ムカ<14,06-,11>
多リㄱ 睡眠隨煩惱リ {現行ノヤセ} 過失 [有]ムカ<14,06-,11>
遠離ヒ 中ミ十 {不欣樂ノヤセ} 過失 [有]ムカ<14,11-,17>
如實觀ヒ 中ミ十 {不欣樂ノヤセ} 過失 [有]ムカンア矢ト<14,11-,17>
能カ 所對治シ {斷ンヤセ} 法リ 所作 多ンㄱ入シ [由]ミㄱ入ハ<14,22-15,04>
又 善說法ニ {毘奈耶ニノヤセ} 中ミ十ンㄱ<17,05-,10>
心ミ十 恚恨ノア 无ヲ 損ノア 無ヲ 惱ノア 无ヲンミホ 而ハ 自ハ {修治ンカノヤセ} 此 五相シ<17,10-,17>
[於]涅槃ミ十 勝功德シ {見ンカノヤセ} 此 五相シ 由ミンア入シ<17,17-

18,01>
四處ミ十 二十二相し [以]ヨ {正觀察ソ令セ} 時ニ十<18,09-,13>
諸 不可意セ 身業語業し {現行ソ令セ} 事ニノ令セ 中ミ十<18,23-19,05>
[於]他ラ 利養恭敬ニ 及セ 餘 不信ソヒセ 婆羅門等ソフラ 對面ソヨ 背面ソヨソミ 諸 不可意セ 身業語業し 現行ソ令セ {事ニノ令セ} 中ミ十<18,23-19,05>
一十フ 未調ソヨ 未順ソヨソミ 而ム {死ノ令セ} 雜染 相應ソカ<20,23-21,06>
煩惱大坑ミ十 {墮ノ令セ} 雜染 相應ソカ<20,23-21,06>
有怖處ミ十 {往ノ令セ} 雜染 相應ソ尸矢ト<20,23-21,06>
作意リ 微細現行ソ令十 隨入ソミ 有間无間ヲ {隨轉ソ令セ} 我慢 俱行ソフ 心相リ 能カ 現觀し<23,11-,18>
心リ 任運ヲ {轉ソ令セ} 中ミ十<23,11-,18>
歡喜事し {思惟ソ令セ} 義フ 廣リ 說尸入フ<28,16-22>
在家ニ {出家ニノ令セ} 衆し 與セ 相ラ 雜住ソ尸 不多ソミ<29,05-,08>
[於]尒ソフ 時ニ十 修得圓滿ニリカ {最極損減ニリ令セ} 方便道理ム 煩惱し 斷ソフ入ム<29,13-,19>
如ハソフ 道し {修習ノ令セ} 義フ 廣リ 說尸入フ<29,19-30,01>
能カ 障导し {爲一リ令セ} 有ソフ 所セ 煩惱リフ 此 諸 煩惱フ 能カ 隨眠リ尸 [爲]入しソミ<30,05-,13>
內し 依ミ 諸根し {不護ノ令セ} 過失 [有]ユノ尸ム<30,13-,18>
又 樂住し {愛味ノ令セ} 過失 [有]ユカ<30,18-31,02>
行住ミ十 {放逸ノ令セ} 過失 [有]ユカ<30,18-31,02>
語言ニ 尋思ニ {追求ニノ令セ} 三種過失 [有]ユカ<30,18-31,02>
靜慮邊際し {依ノ令セ} 過失 [有]ユカ<30,18-31,02>
此 極淸淨道ム 及セ 果功德ム し {證得ノ令セ} 義フ 廣リ 說尸入フ <31,07-,11>

▪ 관계절을 만드는 ㄕ-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

種種ㄴ 衣服ㅗ 飮食ㅗ 諸坐臥具ㅗ {病緣醫藥ㅗㅅㄕ} 供身什物ㄴ 奉施ㅅㄕ矢ㅣ<03,15-,22>

二十種ㄴ 所對治法ㄱ 略ㅁㄱ 四相ㄴ 由ㅈ {[於]生起ㅅㄕ} 所ㄴ 三摩地ㄴ 中ㅈㅓ<14,17-,22>

{大師ㄕ} 鄔波柁耶ㅗ 阿遮利耶ㅗㅅㄕㅋ [於]時時間ㅈㅓ 敎授敎誡ㅅㄕㅅ ㄴ 依ㅈ 攝受 依止ㅅㄕ矢ㅣ<25,04-,10>

▪ 관계절을 만드는 ㄕ-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

思擇力ㅱ {攝ㅅㄕ} 不淨想ㄴ 中ㅈㅓ 當ㅅ 知ㅎㅣ<09,20-10,02>

修習力ㅱ {攝ㅅㄕ} 不淨想ㄴ 中ㅈㅓ 當ㅅ 知ㅎㅣ<10,02-,12>

[於]飮食ㅈㅓ 知量 不ㅅㅅㄱ ㅅㅱ 故ㅅ 身不調適ㅅㄕㅅ 又 尋思ㅱ {擾亂ㅅㄕ} 所ㄴ 爲ㅅㄱ ㅅㅱ<10,08-15>

[於] 无常ㅈㅓ {修ㅅㄕ} 所ㄴ 苦想ㅈㅓ 略ㅁㄱ<10,15-,23>

故ㅅ {[於]思惟ㅅㄕ} 所ㅈㅓ 疑ㅐ 隨逐ㅅㄕ 有ㄴ가<11,14-,21>

故ㅅ 身 沈重ㅅㅈㅓㅎ {堪能ㅅㄕ} 所 无ㅅㅎㄴ 過失 [有]ㅐ가<14,06-,11>

故ㅅ [於]正方便ㅐㄱ 根本定ㅱ {攝ㅅㄕ} 內心 奢摩他ㅈㅓ 遠離 愛樂ㄴ 證得ㅅㅎ<16,01-,08>

見ㅅ 疑ㅅ 无明ㅅ 等ㅅㄱ 諸 隨煩惱ㅋ[之] {染汚ㅅㄕ} 所ㄴ 爲ㅅㅏㄕㅅ ㅅㅱ 名ㅜ 圓滿ㅅㅈㅓㅎ<16,09-,16>

又 正ㄴ 觀察ㅅㅈ 他ㄴ 從ㄴ {畜積ㅅㄕ} 所 无ㅅㄱ 諸 供身ㄴ 具ㄴ 獲得ㅅㄕㅅㄴ<16,22-17,05>

善品ㄴ 修ㅅㅎㄴ 者ㄱ 略ㅎ 四苦ㅋ[之] {隨逐ㅅㄕ} 所ㄴ 爲ㅅㅏㅎㄴ<18,01-,08>

沙門果ㅈㅓ 能가 隨ㅅ {證ㅅㄕ} 所ㄴ [有]ㅐㄕ 未ㅅㅅㄱ ㅅㅱ<18,01-,08>

故ㅅ 猶ㅐ 惡趣苦ㅋ {隨逐ㅅㄕ} 所ㄴ 爲ㅅ가<18,01-,08>

內壞苦ㅋ[之] {隨逐ㅅㄕ} 所ㄴ 爲ㅅ가 一切 所愛離別ㄴ 法ㅐㄱ ㅅㅱ<18,01-,08>

故ㅅ 一切 苦因ㅋ[之] {隨逐ㅅㄕ} 所ㅐㅣ<18,01-,08>

又 十無學支ㅠ {攝ノ尸} 所ヒ 五无學蘊リㄱ 謂ㄱ 所ㄱ 戒蘊ㅅ 定蘊ㅅ 慧蘊ㅅ 解脫蘊ㅅ 解脫知見蘊ㅅし 名下 極淸淨道ㅗノヲㅣ<30,05-,13>
又 緣起ㅠ {攝ノ尸} 所ヒ 發起取雜染品ヒ 過失 [有]ㅓ分<30,18-31,02>
隨ノ {究竟ノ尸} 所ヒ 法ミ十 如理ヲ 作意思惟 能 不ハンカンノ尸矢ㅣ<11,14-,21>
[於]三位ヒ 中ミ十 十種ヒ 瑜伽し 修習ンミ {對治ノ尸} 所ヒ 法 有ンㄱリㄱ丁<08,01-,04>
[云]何ンㄱし 十種ヒ 瑜伽し 修習ンミ {對治ノ尸} 所ヒ 法リㅣノ令ロ<08,04-,08>
四苦ヲ 常リ {隨逐ノ尸} 所し 爲ハミ 得ホ 解脫 未ハンカ(ミ?)ノㄱリㅠ<18,13-19>
[於]增上慧學ミ十ンㄱ 正見ㅠ {攝ノ尸} 所ヒ 微妙聖道リㅣ<21,06-,12>
卽ラ 是ㄱ 初靜慮ヒ 近分定し 得ナヲㅠ 未至位ㅠ {攝ノ尸} 所リㄱ丁<14,22-15,04>
[於]尸羅ミ十 {缺犯ノ尸} 所 [有]ㅓミㄱㅣ十ㄱ<17,10-,17>

▪보문을 만드는 尸

[於]三位リㄱ 樂位ㅅ 苦位ㅅ 不苦不樂位ㅅミ十 諸 煩惱ヲ[之] {隨眠ノ尸} 所し 爲ハノ尸ム<30,02-,05>

▪보문을 만드는 ヒヒ

軌範し{壞ノヒヒ}中ミ十<06,17-07,02>
同梵行者し{伴[爲]ミノヒヒ}過失[有]ㅓ分<13,08-,15>
{[於]愛盡寂滅ンヒヒ}涅槃ミ十<22,20-,23>
心便ラ堅住{不多ノヒヒ}此因緣し<24,17-25,01>
{[於]愛盡寂滅ンヒヒ}涅槃界ヒ中ミ十<25,18-26,02>
心{安住ンヒヒ}時ㅗ十<25,18-26,02>
善說法ㅗ毘柰耶ㅗノ令十{入ンヒヒ}時ㅗ十<30,05-,13>

▪ 관계절을 만드는 ㅌㅓ-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된 경우

{正信ㅅㅌㅓ}長者ㅗ居士ㅗ婆羅門ㅗ等ㅅㄱㅣㅗ<03,15-,22>
三摩地ㄴ{得ㅅㅌㅓ}者ㄱ<15,10-,14>
[於]色{相應ㅅㅌㅓ}愛味<15,14-,17>
{正信ㅅㅌㅓ}長者ㅗ居士ㅗ婆羅門ㅗ等ㅅㄱㅋㅓ<18,23-19,05>
{不信ㅅㅌㅓ}婆羅門等ㅅㄱㅋ對面ㅅㅎ背面ㅅㅎㅅㅈ<18,23-19,05>
正法ㅈㅓ{住ㅅㅌㅓ}者ㄱ<20,17-,23>
彼ㄴ與ㅓ{共居ㅅㅌㅓ}增上力ㅱ<26,09-,14>
{有恩ㅅㅌㅓ}者ㅋㅓ<28,16-22>
{[於]最寂靜ㅅㅌㅓ}涅槃界ㅓ中ㅈㅓ<31,02-,07>
第一有ㅈㅓ{生ㅅㅌㅓ}者ㅣㄱ<31,02-,07>
諸聖法ㄴ得ㅅㅌㅓ者ㄱ<31,11-,17>
聖法相應ㅅㅌㅓ[之]心ㅣ<31,11-,17>

▪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

{所依ㅣㄱ}所建立處ㄴ依止[爲]ㅑㄱㅅㄴ<03,15-,22>
非聖煩惱ㅋ[之]{隨逐ㅅㄱ}所ㅣ現ㅈ<03,22-04,06>
{說ㅅㄱ}所ㅓ相ㄴ<04,15-,19>
{得ㅅㄱ}所ㅓ勝利ㅗㅅㅎㅣ<06,07-,13>
尸羅圓滿ㅱ[之]{攝受ㅅㄱ}所ㅣㅎㅅㅊ<06,17-07,02>
善友ㅋ[之]{攝受ㅅㄱ}所ㄴ依ㅈㅏ<06,17-07,02>
{攝受ㅅㄱ}所ㄴ依ㅈㅏ<06,17-07,02>
{說ㅅㄱ}所ㄴ如ㅅ漸次ㅱ能ㅊ解脫圓滿ㅅ[令]ㅣㅏㅎㅓㅣ<07,11-,16>
{聞ㅅㄱ}所ㄴ如ㅅ已ㅑ<11,02-,10>
[於]{聞ㅅㄱ}所ㄴ隨ㅅ<11,14-,21>
{得ㅅㄱ}所ㅓ止擧捨相ㄴ<15,17-16,01>
出家者ㅋ{受ㅅㄱ}所ㅓ<17,05-,10>
自業ㅋ{作ㅅㄱ}所ㅣㄱㅅㅱ<18,01-,08>
{證ㅅㄱ}所ㄴ<19,05-,10>

{說ノ丁}所[如]ㅊㄴ丁<19,16-,22>
{說ノ丁}所七得三摩地ㅅ<19,22-20,02>
{說ノ丁}所七三摩地圓滿ㅅ<19,22-20,02>
{說ノ丁}所七三摩地自在ㅅし<19,22-20,02>
{得ノ丁}所し如ハㄴ丁<20,03-,08>
{先造作ノ丁}所七惡不善業し<22,04-,10>
先下{說ノ丁}事し<22,04-,10>
{作ノ丁}所七擾亂ㅠ<24,10-,17>
{得ノ丁}所七衣服ㅗ飮食ㅗ<24,17-25,01>
{獲得ノ丁}所七利養<24,17-25,01>
{得ノ丁}所七利養恭敬し<24,17-25,01>
{謂丁}所丁大師尸<25,04-,10>
{說ノ丁}所七相し<28,16-22>
{說ノ丁}所七相し<29,13-,19>
{得ノ丁}所し<29,19-30,01>
先下{說ノ丁}所七諸歡喜事ミ十<29,13-,19>
{攝受ノ丁}極所リナ丁リ皿<29,13-,19>
{得ノ丁}所し<29,19-30,01>
{得ノ丁}所し<29,19-30,01>
最後身ラ{任持ノ丁}所ミ<30,18-31,02>
{說ノ丁}所七相し<31,07-,11>
若{得ノ丁}所し<31,17-23>
{說ノ丁}所七相し<31,23-32,06>
{說ノ丁}所七世間<31,23-32,06>
{說ノ丁}所七出世間<31,23-32,06>
{說ノ丁}所し<31,23-32,06>
食ラ{持ノ丁}所ㅠ<20,09-,14>
補特伽羅ラ{多分顯ノ丁}所リヒ<30,02-,05>

▪보문을 만드는 ㄱ

謂ㄱ{所ㄱ}隨順ㅅ及ㄷ無染<04,06-,10>
聞白尸{未ㄲㅅㄹㄷㅣㄴㄱ}甚深法義ㄴ<07,02-,06>
{擾動ㄴㄱ}所ㄴ<08,08-,12>
[應]ㄷㅅㄱ{不矣ㄲㄱ}處ㅋ十<12,07-,16>
{[於]行住坐臥語默等ㅅㄱ}中ㅋ十<16,22-17,05>
{雜染相應ㅅㄱ}過患ㅋ十<20,17-,23>
{淸淨不相應ㅅㄱ}過患ㅋ十<20,17-,23>
{諸煩惱斷ㅅㄱ}究竟涅槃ㄴ<21,06-,12>
{雜染相應ㅅㄱ}過患ㅋ十<20,17-,23>
{雜染相應ㅅㄱ}過患[有]ㅐㄴㄱㅅㄴ<21,12-,16>
{淸淨不相應ㅅㄱ}過患ㅋ十<21,16-,23>
{淸淨不相應ㅅㄱ}過患<21,16-,23>
復五因ㅣ二十種相ㅱ[之]{攝受ㄴㄱ}所ㅣㅌ<22,20-,23>
{[於]尒ㅅㄱ}時ㅗ十<23,18-,23>
{[於]尒ㅅㄱ}時ㅗ十<25,18-26,02>
轉上ㅅㅋ轉勝ㅅㅋ{轉微妙ㅅㅋㅅㄱ}處ㅋ十<29,09-,13>
{[於]尒ㅅㄱ}時ㅗ十<29,13-,19>
{苦苦相應ㅅㄱ}過失ㅣㅁ<30,13-,18>
{彼相應ㅅㄱ}想ㄴ知ㄴㅎ<11,02-,10>
{俱ㅅㄱ}光明想ㅋ十<11,10-,14>
{思所成慧俱ㅅㄱ}光明想ㅋ十<11,10-,14>
{修所成慧俱ㅅㄱ}光明想ㅋ十七法有ㅁㅅㄱㅗ<11,10-,14>
{思所成慧俱ㅅㄱ}光明想ㅋ十<11,14-,21>
{思所成慧俱ㅅㄱ}光明想ㅋ[之]所對治ㅗㄴㅍㅗ<11,21-12,01>
[爲]{修所成慧俱ㅅㄱ}光明想ㅋ所治ㄷ七法ㅣㅣㄴㅊㅁㄹ<12,01-,07>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된 경우

{[於]三位ㄲㄱ}樂位ㅅ苦位ㅅ不苦不樂位ㅅㅋ十<30,02-,05>

[於]寒熱等{ㅅㄱ}苦ㅋ十<13,19-14,01>
[於]內心寂止{ㅢㄱ}遠離ㄴ中ㅋ十<14,11-,17>
謂ㄱ{所ㄱ}大師尸<25,04-,10>
謂ㄱ{所ㄱ}戒蘊人定蘊人慧蘊人<30,05-,13>
謂ㄱ{所ㄱ}外ㄴ諸欲ㅣ依ㅅㄱ ㄹ十<30,13-,18>
諸 弟子衆ㅢ 此 正法ㅣ 依ㅎ 復 他人ㄹ 爲ㅁ {隨順ㅅㄱ} 敎誡ㅗ 敎授ㅗ ㅅ尸ㅣ 說ㅅ尸入ㅣ<03,05-,11>
{增長廣大ㅅㄱ} 有ㄴㄱ 所ㄴ 功德ㅣ 證得ㅅㅋㅅ尸矢ㅣ<03,05-,11>
{衣鉢等ㅅㄱ}事ㅣ<26,03-,09>
{王賊等ㅅㄱ}雜染言論ㅣ<26,09-,14>
{[於]沈掉等ㅅㄱ}諸隨煩惱ㅋ十<26,19-27,03>
{蚊虻等ㅅㄱ}衆苦ㅱ<27,03-,09>
{有ㄴㄱ} 所ㄴ 功德ㅣ 證得ㅅㅋㅅ尸矢ㅣ<03,05-,11>
{所知境ㅢㄱ}眞實性ㄴ中ㅋ十<06,17-07,02>
諸弟子衆ㄹ{[有]ㅓ白ㅅㄱ}所ㄴ聖法ㅣ證得ㅅㅏㅜㄴㅣ<03,15-,22>
无學ㄹ{[有]ㅓㅅㄱ}所ㄴ聖法ㅣ<03,22-04,06>
{是[如]ㅈㅅㄱ}十種ㅣ<03,15-,22>
{是[如]ㅈㅅㄱ}所受ㄴ正法ㅣ退失ㅅㅗ尸ㅗㅅㅏ尸入ㅱ<03,15-,22>
{是[如]ㅈㅅㄱ}聖法ㅋ十略ㅁㄱ<03,22-04,06>
{是[如]ㅈㅅㄱ}初支ㄴ生圓滿ㄴ廣聖敎ㄴ義ㅋ十<03,22-04,06>
{是[如]ㅈㅅㄱ}四種過失ㅣ遠離ㅅㅋㅂ<04,10-,14>
內外ㅣ{依ㅅㄱ}生圓滿ㅗㅅ孑ㅣ<03,15-,22>
{障盖ㅢㄱ}諸惡尋思ㅣ遠離ㅅㅋㅅㅎ<05,01-,06>
{善決定義ㅢㄱ}思所成智ㅣ<05,06-,10>
{見道ㅢㄱ}有學解脫ㅣ<05,10-,17>
{是[如]ㅈㅅㄱ}涅槃ㅣ<05,17-,22>
{所設法義ㅢㄱ}甚深上味ㅣ<05,23-06,07>
{廣大ㅅㄱ}歡喜ㅣ證得ㅅㅋ<05,23-06,07>
{有ㄴㄱ}涅槃ㄴ[之]界ㅣ<06,07-,13>

{有ヒ丁}所ヒ廣義ヒノ尸ヒ<06,07-,13>
{奢摩他支丁}尸羅圓滿ハ[之]<06,17-07,02>
{有智ソ丁}同梵行者リ<06,17-07,02>
{有ヒ丁}所ヒ善法し<07,11-,16>
{對治リ丁}有ヒ丁所ヒ善法し<07,11-,16>
對治リ丁{有ヒ丁}所ヒ善法し<07,11-,16>
{是[如]ま丶丁}十種し<03,15-,22>
{是[如]ま丶丁}三支ヒ廣聖教ヒ義丁<07,16-,23>
{淫欲相應ソ丁}貪[有]ム方<08,04-,08>
{受用相應ソ丁}愛[有]ム方ソ尸入し<08,04-,08>
在家位ミ十[爲]{處ソ丁}所對治法ヒノ尸ヒ<08,04-,08>
{是[如]ま丶丁}二種ヒ所對治ヒ法ミ十<08,08-,12>
{世間相應ソ丁}見聞受用ヒ諸散亂事し[有]ム白ノ干皿<08,19-09,02>
{是[如]ま丶丁}四種所對治ヒ法ミ十<09,03-,11>
{是[如]ま丶丁}四種所對治ヒ法ミ十<09,16-,20>
{遠離リ丁}內心寂靜奢摩他定し<10,08-15>
{是[如]ま丶丁}一切所對治ヒ法丁<10,08-15>
{是[如]ま丶丁}所對治法ヒ<10,08-15>
{[於]未生ソ丁}善法リ<10,15-,23>
{[於]已生ソ丁}善法し<10,15-,23>
{有ソ丁}所ヒ懈怠リ方<10,15-,23>
{是[如]ま丶丁}六種所對治ヒ<10,21-11,2>
{多リ丁}光明し<11,02-,10>
{有ヒ丁}所ヒ忘念リ方<11,02-,10>
{是[如]ま丶丁}所治ミ十合リロ丁<11,10-,14>
修し{依ソ丁}極勇精進所對治ヒ法リ方<12,01-,07>
止相修し{依ソ丁}極劣精進所對治ヒ法リ方<12,01-,07>
捨相修し{依ソ丁}定味し貪着ソミホ<12,01-,07>
{有ヒ丁}所ヒ喜悅リ方<12,01-,07>

{俱行ンㄱ}有ヒㄱ所ヒ喜悦リか<12,01-,07>
{是[如]ネンㄱ}方便作意し<12,07-,16>
{是[如]ネンㄱ}七種し<12,13-,18>
{修所成慧俱ンㄱ}光明想ヲ所對治ヒ<12,13-,18>
{修所成慧俱ンㄱ}光明想し障导ンミ<12,13-,18>
{相違ンㄱ}能對治ヒ法リ<12,13-,18>
{是[如]ネンㄱ}三法ㄱ<12,18-13,03>
{是[如]ネンㄱ}十相ミ有ンㄱ ㅗ<12,18-13,03>
{是[如]ネンㄱ}增上力し<13,15-,19>
{失相應ンㄱ}臥具し<14,01-,06>
{相應ンㄱ}臥具ㄱ<14,01-,06>
{多リㄱ}睡眠隨煩惱リ<14,06-,11>
{是[如]ネンㄱ}二十種法し<14,11-,17>
{少小ンㄱ}殊勝定ヒ中ミ十<15,10-,14>
{愛味俱行ンㄱ}煩惱ミ十<15,14-,17>
{又[於]廣大ンㄱ}淨天生ヒ處ミ十<15,14-,17>
{又是[如]ネンㄱ}三摩地圓滿し依ンㄱ入ㅠ<16,01-,08>
{[於]正方便リㄱ}根本定ㅠ<16,01-,08>
{有ヒㄱ}所ヒ愛樂し<16,01-,08>
{是[如]ネンㄱ}十相ミ<16,01-,08>
三摩地ㅠ{生ンㄱ}愛味ㅅ慢ㅅ見ㅅ疑ㅅ<16,09-,16>
{是[如]ネンㄱ}諸隨煩惱し<16,09-,16>
{下劣ンㄱ}形相ㅗ<16,16-,22>
{下劣ンㄱ}形相し<16,16-,22>
{下劣ンㄱ}威儀し<16,22-17,05>
{无ンㄱ}諸供身ヒ具し<16,22-17,05>
{下劣ンㄱ}衆具し<16,22-17,05>
{顯現ンㄱ}所リ丨<17,05-,10>
{顯ンㄱ}所リか<17,05-,10>

{顯現ンㄱ}所ㄩㅣ<17,05-,10>
{是[如]ま ンㄱ}四苦ヲ隨逐ノ尸入し<18,01-,08>
{是[如]ま ンㄱ}四處ミ十<18,09-,13>
{是[如]ま ンㄱ}如理作意し<18,09-,13>
{是[如]ま ンㄱ}事し求ン<18,09-,13>
{下劣ンㄱ}形相ㅗ威儀ㅗ<18,09-,13>
{是[如]ま ンㄱ}奢摩他し<19,05-,10>
{是[如]ま等ンㄱ}諸資生具ㄱ<19,10-,16>
{沙門果證闕ノㄱ}增上力し<20,17-,23>
增上心學し{依ンㄱ}善心<21,06-,12>
{自性苦ㄩㄱ}无暇處ミ十<21,12-,16>
{量无ンㄱ}見趣し<21,16-,23>
{淸淨ㄱ}學无學道し<22,04-,10>
{顯ノㄱ}所ㄩㄱ入し<22,04-,10>
彼ㄱ{厭俱行ンㄱ}想し由ミ<22,15-,20>
{是[如]ま ンㄱ}通達作意し<22,23-23,06>
{是[如]ま ンㄱ}方便し<23,06-,11>
{是[如]ま ンㄱ}五因ㄱ當ハ知ㄘㅣ<23,06-,11>
{俱行ンㄱ}心相ㄩ<23,11-,18>
{[於]作意俱行ンㄱ}心ㄩ<23,11-,18>
新ㅟ{起ノㄱ}所七作意し<23,11-,18>
{無常等ンㄱ}行し<23,11-,18>
{平等ンㄱ}智ㄩ<23,18-,23>
{是[如]ま ンㄱ}障导し<24,10-,17>
{衰盛等ンㄱ}事し<24,17-25,01>
{是[如]ま ンㄱ}資糧ミ十<25,04-,10>
{[於]蘊等ンㄱ}事ミ十<25,04-,10>
尸羅淨ミ十{有七ㄱ}所七作意し<25,10-,17>
{[如]ま ンㄱ}方便し<25,10-,17>

{生起ンㄱ}僧<26,03-,09>
{不隨順ンㄱ}性ㅅ<26,14-,19>
{不隨順ンㄱ}性ㅅ<26,14-,19>
{不隨順ンㄱ}性ㅅ<26,14-,19>
{不隨順ンㄱ}性ㅅ<26,14-,19>
{不隨順ンㄱ}性ㅅ<26,14-,19>
{順ンㄱ}正法し<26,19-27,03>
{不隨順ンㄱ}性ㅗノヲ<26,19-27,03>
{不隨順ンㄱ}性ㅗノヲリㄱㅜ<26,19-27,03>
{不隨順ンㄱ}性ㅗノヲリㄱㅜ<26,19-27,03>
{相應ンㄱ}諸坐臥具し<27,03-,09>
{不順隨ンㄱ}性ㅗノヲリㄱㅜ<27,03-,09>
{觸ノㄱ}所多ク<27,03-,09>
{多リㄱ}諸定樂し<27,09-,16>
{多リㄱ}諸定樂し發生ンヤ[應]セ丨<27,09-,16>
自己ラ{[有]ㅓノㄱ}所セ善法<27,16-,21>
自他ラ{[有]ㅓノㄱ}所セ衰盛<24,17-25,01>
故ノ{[於]生起ンㄱ}所セ<27,21-28,03>
{是[如]ㅈンㄱ}二處セ十種善巧ㄱ<28,04-,08>
{生起ンㄱ}所し<28,04-,08>
{[於]佛法僧リㄱ}勝功德田ミ十<28,09-16>
{隨順ンㄱ}歡喜事し<28,16-22>
{隨順ンㄱ}歡喜事し<28,16-22>
{[如]ハンㄱ}道し<28,23-29,05>
{生ンㄱ}所セ<28,23-29,05>
{是[如]ㅈンㄱ}聖處リㄱ<28,23-29,05>
{[於]少分殊勝ンㄱ}所證ミ十<29,09-,13>
{生ンㄱ}所セ歡喜し<29,13-,19>
{殊勝ンㄱ}所證法し<29,13-,19>

{生ソ丁}身心<29,13-,19>
{[如]ハソ丁}道し<29,19-30,01>
{如ハソ丁}道し<29,19-30,01>
{有ソ丁}所七煩惱リ丁<30,05-,13>
有ソ丁所七{煩惱リ丁}此諸煩惱丁<30,05-,13>
{有七丁}所七愁歎憂苦<30,13-,18>
{各別ソ丁}邪見ゝ<30,18-31,02>
{起ソ丁}所七語言ユ<30,18-31,02>
{是[如]ま ソ丁}十種過失ミ十<30,18-31,02>
{有七丁}所七有情ラ十<31,02-,07>
{是[如]ま ソ丁}一切し摠略ソミホ<31,07-,11>
{是[如]ま ソ丁}最上无學ラ諸聖法し<31,11-,17>
{是[如]ま ソ丁}聖法相應<31,11-,17>
{如ハソ丁}道し<31,17-23>

「華嚴經」

▪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된 경우

汝丁今ソ丁{饒益ノ尸}所多カ<華嚴14;02:10-12>
{安隱ノ尸}所ミ多ナ丁入しゝ<華嚴14;02:10-12>
善ま於他し破ソミ四諦說外尸{動ソミ ヲ尸}所ミ非矢ㅠ四諦說<華嚴14;20:11>
當願衆生心ミ十{染ノ尸}所ミ無ミハ大仙ラ道し具ヲヒ立<華嚴14;03:12>
諸丁佛法ミ十心ヲ{礙ノ尸}所ミ無カ<華嚴14;02:12-17>

▪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된 경우

若七{施ノ尸}所し[有]ヰ土丁 丨十丁<華嚴14;03:03>
彼ラ{解ノ尸}所七語言音し隨ヲ爲ミヲ四諦し說ミホ解脫令リナヲセ丨<華嚴14;20:13>
或ソ丁寶珠リ尸入し作ソミホ{求ノ尸}所し隨或ソ丁正道し以ミ衆生ラ十示

リナカ<華嚴14;19:10-11>
心{著ノ尸}所ミ無ヒ立<華嚴14;03:23>
心ミ十{樂ㄱノ尸}所ミ無ヒ立<華嚴14;6:03>
心ミ十{屈ノ尸}所無ヒ立<華嚴14;6:24>
見當願衆生天人ヲ[之]{歎仰ノ尸}所リ尸爲入シンㄱ應センヒ立<華嚴14;7:02>
共セ{瞻仰ノ尸}所ヒ立<華嚴14;8:07>
衆{欣ノ尸}所リ尸入シンカ<華嚴14;19:06-07>
一切如來尸{稱美ンㄲㄱ尸}所リヒヲカ<華嚴14;10:13>
梵王ミノ仝ヲ[之]守護ンミ恭敬ンミ{供養ンミノ尸}所し得カ<華嚴14;2:03-06>
佛矢{護念ンㄲㄱ尸}所リ尸爲入ㄱンヒヲカ<華嚴14;11:02>
佛矢{護念ンㄲㄱ尸}所リ尸[爲]入シンヒ尸入ㄱ則能菩提心し發起ンヒヲカ<華嚴14;11:03>
佛矢{授記ンㄲㄱ尸}所リ尸[爲]入シンヒヲカ<華嚴14;12:14>
其{樂ㄱ尸}所し隨ㄱ悉ミ見リ令リロヒ<華嚴14;14:23-24>
諸ㄱ衆生ヲ心セ{樂ㄱノ尸}所し隨ㄱ悉ミ<華嚴14;17:17-19>
一切世間ヲ好カ{尙ㄱ尸}所セ色相ミ顔容ミ及セ衣服ミノ仝し<華嚴14;18:04-05>
[於]諸ㄱ欲樂ミ十{受ㄱ尸}所ミ無ㄱㄱ入し示リナカ<華嚴14;18:16-17>

▪ 보문을 만드는 尸

緣覺ミノ仝ヲ動尸{不能リ矢ノ尸}所リ云ナㄱセ丨<華嚴14;8:16-18>
則煩惱リ{起ノ尸}所ミ無ㄱㄱ入し知ミ尒永云[於]生死ミ十沒溺ンノ尸不ンヒヲカ<華嚴14;13:17-18>

▪ 보문을 만드는 仝セ

若セ{飯食ンノ仝セ}時十ㄱ當願衆生禪悅し食爲ミカ法喜し充滿ンヒ立<華嚴14;7:18>
若セ{說法ンノ仝セ}時ミ十ㄱ當願衆生無盡辯し得ミ尒廣リ法要し宣ンヒ立く

華嚴14;7:21>
{敬ノ今セ}心ヿ塔シ觀ソ白ス了丨十了當願衆生諸了天ミ及セ人ミノ今ヲ共セ瞻仰ノ尸所ヒ立<華嚴14;8:07>
信了垢濁無ミ尒心ヵ清淨ヘリナヲ分憍慢シ滅除ソロ{恭敬ノ今セ}本リ尸入シソナ了リ分<華嚴14;09:22-23>
信了能支永ス煩惱シ{滅ミ今セ}本リ尸入シソナ了リ分信了能支專ヵ佛功德ミ十向ヘリナヲ分<華嚴14;10:03>
戒了能支菩提シ{開發ノ今セ}本リ尸入シソ分<華嚴14;10:12>
學了是リ功德シ{勤修ノ今セ}地リ尸入シソ分ソナ了リ分<華嚴14;10:12>
若能諸了羣生シ成就ソヒ尸入了則善支衆生シ{攝ノ今セ}智シ得ヒヲ分<華嚴14;12:05>
若善支衆生シ{攝ノ今セ}智シ得ヒ尸入了則能四攝七法シ成就ソヒヲ分<華嚴14;12:06>
則能衆ヲ爲ミ{說法ソ今セ}時ミ十音聲リ類シ隨ヵノ尸ム難ミ思議ノヲヒヲ分<華嚴14;13:13-14>
讚頌リ如來尸實功德シ{稱歎ソ白ヵ今セ}是如支ソ了種種七妙言辭シ皆七掌內シ從七而ヿ<華嚴14;16:02-03>
或ソ了如來シ{供養ソ白ヵ今セ}門シ以ミソ尸カソ分或ソ了難思七布施門シ以ミソ尸カソ分<華嚴14;17:06>
或以福智莊嚴門或以因緣ミ{解脫ミノ今セ}門或以根ミ力ミ正導ミノ今セ門或以聲聞ヲ解脫門<華嚴14;17:11-12>
或獨覺ヲ清淨門以或大乘七自在門以或無常ミ{衆苦ミノ今セ}門以或我ミ<華嚴14;17:13-14>
貪欲ミ瞋恚ミ{癡ミノ今セ}煩惱七猛火リ常リ熾然ソナ了リ分ミ<華嚴14;18:22-23>
[云]何智シ先導{爲ミヵ今セ}身語意業シ得分<華嚴14;1:04-10>

▪ 보문을 만드는 ヒセ

何セミ況分量無分邊尸無劫ミ十具ヵ地度シ{修(乂)ヒセ}諸了功德リロヒ了

ㅔ<華嚴14;09:06>
劫ヒ中リ饑饉ンヽホ{災難リ𠫓ヒヒ}時リ十ㄱ悉ヽ世間ヒ諸ㄱ樂具し與ンナヽ<華嚴14;17:22-23>

• 보문을 만드는 ㄱ

{爾ミヒンㄱ}時十<華嚴14;1:04>
瓔珞し{著ンセㄱ}時ミ十ㄱ當願衆生諸ㄱ僞飾し捨ソロハ眞實處ヽ十到ヒ立<華嚴14;03:01>
居家し{捨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出家ノ尸ム礙尸無ヽハ心ヽ十解脫ノ尸入し得ヒ立<華嚴14;03:06>
正ヒ{出家ンセㄱ}時ミ十ㄱ當願衆生佛止出家ンまでㄱラ十同ンヽハ一切し救護ンヒ立<華嚴14;03:13>
戒し受ンま{學ンまンセㄱ}時ミ十ㄱ當願衆生善ま[於]戒し學ンヽハ衆ㄱ惡し作尸不ンヒ立<華嚴14;03:17>
下足ンヽ{住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心ヽ十解脫ノ尸入し得ヽハ安住ンヽホ動尸不ンヒ立<華嚴14;04:04>
下裙し{著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諸善根服ンヽホ慙媿具足ンヒ立<華嚴14;04:06>
楊枝し{嚼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其心ゃ調淨ンヽハ諸ㄱ煩惱し噬ンヒ立<華嚴14;04:11>
{大小便し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貪瞋癡し棄ソロハ罪ヒ法し蠲蜀諸ンヒ立<華嚴14;04:12>
柔輭食し得當願衆生大悲ゎ{熏ノㄱ}所リ四心意柔輭ンヒ立<華嚴14;7:16>
若味し{受セㄱ}時當願衆生佛矢上味し得ヽハ甘露滿足ンヒ立<華嚴14;7:19>
舍し從ヒ{出ンセㄱ}時當願衆生深リ佛智ヽ十入ンヽハ永セ三界し出ンヒ立<華嚴14;7:22>
若ヒ水ヽ十{入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一切智ヽ十入ンヽホ三世尸等ヽノㄱ入し知ヒ立<華嚴14;7:23>
經し{諷誦ンセㄱ}時十ㄱ當願衆生佛矢說勿でㄱ所ヽ十順ヒソヽハ摠持ソヽ

尒忘尸不ソヒ立<華嚴14;8:03>
諦リ佛し{觀ソ白ムフ}時十フ當願衆生皆七普賢、如ㇾソ彡端正嚴好ソヒ立<華嚴14;8:05>
佛塔し{見白ムフ}時當願衆生尊重ソフ矢塔如ㇾソ彡ハ天人ヲ供し受ヒ立<華嚴14;8:06>
若七{洗足ソムフ}時十フ當願衆生神足七力し具ヤ彡尒所行礙尸無ヒ立<華嚴14;8:13>
{爾ソフ}時十<華嚴14;09:01
十善妙行等ㅣソフ諸フ{道リフ}無上勝寶し皆七現ヤ令リナヤセㅣ<華嚴14;14:11-12>
三乘七教し開闡ソ彡尒廣リ衆生し度リヤ尸ク量リ{無フ}劫彡十ソロヒク<華嚴14;14:21-22>
{是ミセソフ}時十菩薩フ工匠リ尸爲入しソク之ヲ爲ミヤ種種七業し示現ノ尸ム<華嚴14;19:12-13>

▪관계절을 만드는 ヒセー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是[如]ㇾソヒセ}義し問ムナフ丁<華嚴14;02:10-12>
{斜曲ソヒセ}路し見ソフㅣ十フ當願衆生不正道し捨ソ彡ハ永ムフ惡見し除ヒ立<華嚴14;04:24>
{嚴飾ソヒセ}人し見當願衆生三十二相し以彡尒嚴好、爲ミヒ立<華嚴14;05:24>
{樂著ソヒセ}人し見當願衆生法し以彡尒自ヲし娛リヤ尸ム歡愛ソ彡尒捨尸不ソヒ立<華嚴14;6:02>
醜陋人し{見當願衆生[於]不善ソヒセ}事彡十樂著し生リ尸不ソヒ立<華嚴14;6:09>
背恩人し見當願衆生惡フ入し{[於]有ユヒセ}人ヲ十其報ノ尸入し加尸不ソヒ立<華嚴14;6:11>
若能慈愍ソ彡尒衆生し度リヒ尸入フ{則堅固ソヒセ}大悲心し得ヒヲク<華嚴14;11:19>

{若堅固ンヒセ}大悲心し得ヒ尸入ㄱ則能甚深法し愛樂ンヒヲ分<華嚴14;11:20>
若能四攝法成就ンヒ尸入ㄱ則衆生ラ十限ラ{無ㄱヒセ}利ヲ尸入ㄱ與ンヒヲ分<華嚴14;12:07>
若衆生限無利與ンヒ尸入ㄱ{則最勝ンヒセ}智方便し具ろヒヲ分<華嚴14;12:08>
{若最勝ンヒセ}智方便具ヲヒ尸入ㄱ則勇猛無上道ミ十住ンヒヲ分<華嚴14;12:09>
十方セ一切諸ㄱ妓樂リㄱ鐘ヽ鼓ヽ琴ヽ瑟ヽノ今ㄱ一ㄱ類非矢ㄱヽ悉ミ{和雅ンヒセ}妙音聲し奏ンナ今し[於]掌セ中し從出ノ尸不ンア丁ノ尸靡セリンロヒ分<華嚴14;15:24-16:01>
種種セ雜寶ㅠ{莊嚴ノヒセ}蓋ミ十衆ㄱ妙ㄱ繒幡リ共セ垂飾ンカ<華嚴14;16:24-17:01>
以或我ヽ壽者ヽノ今{無ㄱヒセ}門以ンア力ンナミ<華嚴14;17:13-14>
飮食セ{上好ンヒセ}味ヽ寶衣ヽ嚴具ヽ衆ㄱ妙物ヽノ今し以ンカ<華嚴14;17:24-18:01>
或ンㄱ相好ㅠ{莊嚴ノヒセ}身ヽ上妙衣服ヽ寶瓔珞ヽノ今し以分<華嚴14;18:02-03>
迦陵類伽ラ{美妙ンヒセ}音ヽ俱枳羅等ㅣンㄱラ妙音聲ヽ<華嚴14;18:06-07>
[於]彼リ十常リ己ラ十{勝ンヒセ}法し思ム川ナ分<華嚴14;20:01>
文字し分別ンミ{四諦說決定ンヒセ}義理ㅠ四諦說<華嚴14;20:10>

• 관계절을 만드는 ㄱ –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若華開ンㄱし{見當願衆生神通等ㅣンㄱ}法リ華・如ま ンミ開敷ンヒ立<華嚴14;05:11>
邊尸{無ㄱ}大功德し<華嚴14;09:08>
若常リ量リ{無勿ㄱ}佛し覩見ン白ヒ尸入ㄱ則如來尸體リ常住ン勿ヲㄱ入ㄱ見白ヒヲ分<華嚴14;11:14>
若得ミ尒辯才リ障礙ノ尸無ヒ尸入ㄱ則能邊尸{無ㄱ}法し開演ンヒヲ分<華

嚴14;11:17>
量リ{無ㄱ}佛リ華上ゝ十坐ソゝ十方ゝ十示現ノ尸ム<華嚴14;13:02-03>
則量{無ㄱ}神通七力し現ㄇヒヲカ<華嚴14;13:04>
十善妙行{等レソㄱ}諸ㄱ道リㄱ無上勝寶し皆七現ㄇ令リナヤセレ<華嚴14;14:11-12>
ゝホ周七ソ尸不ソ尸丁ノ尸靡七ゝ量リ{無ㄱ}方便し〻羣生し化ソロヒヲカ<華嚴14;14:17-18>
十方ゝ十{有ㄱ}所七勝妙華ヽ塗香ヽ末香ヽ無價寶ヽ是如ㄔソㄱし<華嚴14;15:18-19>
十方ゝ十{有ㄱ}所七諸ㄱ妙物リ無上尊ヲ十奉獻ソ白ㄇヤ應可七ソㄱし<華嚴14;15:22-23>
{妓樂リㄱ}鐘ヽ鼓ヽ琴ヽ<華嚴14;15:24>
十方ゝ十{有ㄱ}所七諸ㄱ讚頌リ<華嚴14;16:02-03>
如來尸實功德し稱歎ソ白ㄇ今七{是如ㄔソㄱ}種種七妙言辭し皆七掌內し從七而〻開演ソロヒカ<華嚴14;16:02-03>
量リ{無ㄱ}寶蓮華し出生ノ尸ム其華七色相ㄱ皆七殊妙ソㄱし<華嚴14;16:06-07>
{妙ㄱ}繒幡リ共七垂飾ソカ摩尼寶鐸ゝ十佛音し演ソカソ今し執持ソゝホ<華嚴14;16:24-17:01>
量リ{無ㄱ}方便〻而〻開誘ノ尸ム<華嚴14;17:04-05>
{是リ如ソㄱ}三昧神通七相し火一切天人リ能ㄔ測ゝ今莫七ナレ<華嚴14;17:17-19>
{有ㄐ勿ㄇㄱ}所七量無ㄱ諸ㄱ功德ヽノ今し悉ゝ以ゝホ示現ソゝ衆生し度リナカ<華嚴;14;18:24-19:01>
{有ㄐ勿ㄇㄱ}所七量無ㄱ諸ㄱ功德ヽノ今し悉ゝ以ゝホ示現ソゝ衆生し度リナカ<華嚴;14;18:24-19:01>
衆生し逼惱ノ今七物七し作ソナ今ㄱ不ㄔリ但ハ世間し利益ノ今七事し說ソナゝ呪術ヽ藥草ヽソ尸{等レソㄱ}衆ㄱ論リㄱ是如ソㄱ有ㄱ所し皆七能ㄔ說ナカ<華嚴14;19:14-15>

是如ンㄱ{有ㄱ}所し皆七能ㄆ說ナカ<華嚴14;19:14-15>
{是如ンㄱ}有ㄱ所し皆七能ㄆ說ナカ<華嚴14;19:14-15>
{是如ㄆ等ンㄱ}類諸ㄱ外道ラ十其意解し觀ンロ與七同事ンナゝ<華嚴14;20:04-05>
{有ㄱ}所七一切諸ㄱ佛法し皆七是リ如ㄆ說ㄇ尸ム盡尸不ン尸丁ノ尸無リンナゝ<華嚴14;20:14>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一切世間七{作ントㄇㄱ}所七法ゝ十悉ゝ能ㄆ應現ンゝ尓其事ラ十同ンナゝ此し以ゝ尓<華嚴14;18:10-11>
於塔し右遶ンムㄱ丨十ㄱ當願衆生{行ノㄱ}所ゝヤ丨逆尸無ゝハ一切智し成リヒ立<華嚴14;8:09>
鳥足灬{履ㄇㄱ}所七空如ㄆンㄱしンカ<華嚴14;09:08-09>
一ㄱ塵七中ゝ七{示現ノㄱ}所しンㄕ如ㄆ一切微塵ゝ十カ悉ゝ亦カ然ミンナトㄱ矢ミ<華嚴14;15:14>
{示リㄇㄱ}所七苦行火七ハ尸入ㄱ世リ十堪リ矢ンゝ今<華嚴14;20:04-05>

▪관계절을 만드는 今七-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則灌頂大神通し獲ゝ尓{[於]最勝ンや七}諸ㄱ三昧ゝ十住ンヒヲカ<華嚴14;13:23-24>
衆生し{逼惱ノや七}物七し作ンナやㄱ不矢リ<華嚴14;19:14-15>
但ハ世間し{利益ノや七}事し說ンナゝ呪術ミ藥草ミンㄕ等丨ンㄱ衆ㄱ論リㄱ<華嚴14;19:14-15>
是如ㄆ{難行ノや七}苦行七法し菩薩ㄱ應七ノㄱ隨ㄇ悉ゝ能ㄆ作ンナカ<華嚴14;19:16-17>
高ㄱラ十{昇ノや七}路し見ゝㄱ丨十ㄱ當願衆生永ムㄓ三界し出ンゝ尓心ゝ十怯弱無ヒ立<華嚴14;04:22>
下リラ十{趣ノや七}路し見ゝㄱ丨十ㄱ當願衆生其心ㄓ謙下ンゝハ佛矢善根し長ンヒ立<華嚴14;04:23>

捨尸{不ソ今七}人し見當願衆生常勝功德七法し捨離尸不ソヒ立<華嚴14;7:06>
{慙恥ソ今七}人し見當願衆生慙恥七行し具ㄱ氵ホ諸ㄱ根し藏護ソヒ立<華嚴14;7:12>
一切世し{照リ勿今七}燈し供養ソロヒカ<華嚴14;16:04-05>
施し{好ㄱソ今七}者し悉氵化氵十從七令リナカ<華嚴14;17:24-18:01>
色し{樂ㄱナ今七}者ㄱし皆七道氵十從七(俾)リナカ<華嚴14;18:04-05>

「金光明經」

▪ 보문을 만드는 今七

二者身命し惜尸不冬ソき{安樂止息ノ今七}之觀し生尸不冬きンカ(금광03:07)
二者量無ソㄱ對治ユ{諸法ユノ今七}之門し心氵十皆曉了ンカ(금광04:07)
是ㄱ道品し{修行ノ今七}依處所リムㄱ入ㅠ(금광07:04-5)
無漏無間き無相氵十{思惟ソ今七}解脫三昧し遠リ修行ンムㄱ入ㅠ(금광07:09)
諸怨賊ユ{恐怖ノ今七}之難ユノ尸乙、無リンき(금광15:08)

▪ 보문을 만드는 尸

{其須ヒイノ尸}所乙隨ノ意乙(금광15:14-15)

▪ 보문을 만드는 ヒ七

四者衆生し利益ソ{爲人ノヒ七}事ㅠ於俗諦中氵十得氵ホ安心住[ンカ](금광04:16)
{盡ヒ七}心ㅠ供養ソ白カ令リロロセノ千カ(금광15:07)

▪ 보문을 만드는 ㄱ

不生ンき不滅ンき不有ンき{不無ンきンㄱ}心ラ十安樂き住ンカ(금광04:13)
得尸{未リンヨセイノㄱ}所ンㄱし(금광06:23)
是如ま衆{多ㄱ}義氵十(금광13:14)

{是所ㅣㄱ}國土ㅣ十ㄱ(금광15:08)

▪관계절을 만드는 ᄉᆞᆫᄃᆡ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된 경우

更ㅣ{生不ㅅ()()ㅣᄉᆞᆫᄃᆡ}智乙得ᄆᆞ未ㅅᄂᆞᆫㅌㄱㅋ(금광08:09)

生死流乙{逆ㄴᄉᆞᆫᄃᆡ}道ㄱ甚深ᄂᆞᆯ微ᄂᆞᆯ(금광15:01)

▪관계절을 만드는 ᄆᆞᆫ 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

子菩薩摩訶薩ㄱ於此初地ㅣ十{依功德力ㅅᄂᆞᆫᄆᆞ}名ㅌ陁羅(금광09:01)

訶薩ㄱ於此二地ㅣ十{善安樂住ㅅᄂᆞᆫᄆᆞ}名ㅌ陁羅尼乙、得ㅣㅎ生ㅣㅏᄀᆞㅎㅌㅣ(금광09:11)

薩摩訶薩ㄱ於此三地ㅣ十{難勝大力ㅅᄂᆞᆫᄆᆞ}名ㅌ陁羅尼乙得ㅣㅎ(금광09:19)

{愛住ㅅᄂᆞᆫᄆᆞ}三摩提ㅣ攝受ᄂᆞᆫㄱ入ᄆ(금광08:18)

第三發心ㄱ{難動ㅅᄂᆞᆫᄆᆞ}三摩提ㅣ攝受ᄂᆞᆫㄱ入ᄆ得ㅣㅎ生ᄂᆞᆫᄀᆞ(금광08:18-19)

第四發心ㄱ{不退轉ㅅᄂᆞᆫᄆᆞ}三昧ㅣ攝受ᄂᆞᆫㄱ入ᄆ得ㅣㅎ(금광08:19)

{昧攝受得生第十發心首楞嚴ㅅᄂᆞᆫᄆᆞ}三昧ㅣ攝受ᄂᆞᆫㄱ入ᄆ得ㅣㅎ(금광08:24)

畏ㅣㄱ{一切惡獸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금광09:25)

{切惡獸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0:09)

{切毒害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0:19)

{切毒害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1:05)

{切惡獸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1:16)

{切惡獸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1:24)

{切惡獸ㅣᄆᆞ}虎狼師子ㅅㅡ一切惡鬼ㅅ人非人等ᄂᆞᆫㄱ怨賊ㅅ(금광12:09)

薩摩訶薩ㄱ於此十地ㅣ十{破壞堅固金剛山ㅅᄂᆞᆫᄆᆞ}陁羅尼乙得ㅣㅎ生ㅣㅏᄀᆞㅎㅌㅣ(금광12:11-12)

▪관계절을 만드는 ᄒᆞᆫᄃᆡ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二者能ㅎ一切衆生ㅣ{於甚深ᄂᆞᆯᄒᆞᆫᄃᆡ}之法ㅣ十入令ㅣㅏㅎ(금광04:21)

{淸淨ᄂᆞᆯᄒᆞᆫᄃᆡ}之寶ᄆᆞᄂᆞᆫㄱ莊嚴ㅌ之具ㅣᄂᆞᆫㅣㅌᄂᆞᆫㄱ入ㅣ(금광06:02)

{一體微細ᄂᆞᆯᄒᆞᆫᄃᆡ}之罪ㅣㄱ(금광07:01)

{微妙秘密ソヒヒ}之藏乙修行ノ尸ム未ハソトフ カ(금광08:07)
{微妙ソニヒヒ}之義ㄐ究(금광13:20)

▪관계절을 만드는 フ-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故ケ能ケ{多ㄐフ}功德寶乙得ㄐ令ㄐ去フ入ㅠ故ノ是し名下(금광02:12)
佛言善男子ミ{是如支ソフ}十種し菩薩摩訶薩尸菩提心因ナノチナフ ㄐ ㅣ (금광02:20)
四者見思煩惱し{是如支ソフ}勝智ㅠ能ケ分別ソミ斷ソケ(금광04:02)
前現ノフム三千大千世界ミ十量無ヒケ邊{無ソフ}種種ヒ寶藏ㄐ皆ヒ(금광05:24)
三千大千世界ヒ地平ソフ矢掌如支ソフラ十量無ケ數{無ソフ}種種ヒ妙色(금광06:01)
妙色ㄐフ淸淨ソヒヒ之{寶ㅠノフ}莊嚴ヒ之具ㄐンミヒノフ入し(금광06:02)
量{無ソフ}億衆ラ圍遶ソミホ供養ソトニナ(금광06:18)
量{無ソフ}衆寶ㅠ之(금광06:19)
二者量{無ソフ}對治ナ諸法ナノ今ヒ之門し心ミ十皆曉了ソケ(금광04:07)
{莊嚴ノフ}所フし以ミホ(금광06:19)
{量無フ}淨光ㄐ(금광06:21)
{量無フ}億梵王ㄐ(금광06:21)
{罪ㄐフ}破戒ヒ過失し(금광07:01)
量{無フ}智慧ヒ光明ミ十(금광07:02)
{如支ネソフ}智慧フ(금광07:14)
{微細ソフ}諸相ㄐ或現ソネ不現ソネソトフ カ(금광08:01)
恒河沙數乙{過ソニフ}諸佛ㄐ(금광09:07)
{一切怖畏ㄐフ}一切惡獸ナ一切惡鬼ナ人非人等ソフ ㄐナ(금광09:09)
二恒河沙數乙{過ソニフ}諸ニフ佛(금광09:15)
{切怖畏ㄐフ}一切惡獸ナ一切惡鬼ナ人非人等ソフ怨賊ナ(금광09:17)
人非人{等ソフ}怨賊ナ(금광09:17)
{畏ㄐフ}一切惡獸ㄐ尸虎狼師子ナ一切惡鬼ナ人非人等ソフ(금광09:25)

人非人{等}ㅅㄱ 怨賊ㅗ(금광09:25)
{一切怖畏ㅐㄱ}一切惡獸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금광10:09)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0:09)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금광10:19)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0:19)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금광11:05)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1:05)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人非人等ㅅㄱ 怨賊ㅗ(금광11:16)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1:16)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人非人等ㅅㄱ 怨賊ㅗ(금광11:24)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1:24)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人非人等ㅅㄱ 怨賊ㅗ(금광12:09)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2:09)
恒河沙數乙{過ㅅㄷㄱ}諸佛ㅐ(금광12:22)
{一切怖畏ㅐㄱ}一切毒害ㅐㄹ虎狼師子ㅗ一切惡鬼ㅗ人非人等ㅅㄱ 怨賊ㅗ(금광12:24)
人非人{等ㅅㄱ}怨賊ㅗ(금광12:24)
{異ㅅㄱ}乘無ㅌㅁㄱ乙(금광13:16)
是{如ㅈㅅㄱ}諸陁羅尼等ㅅㄱ乙得ㅋㅎ成就ㅅㅋㅎㄱㅅㅠ(금광14:16)
{無上ㅅㄷㄱ}種種ㅌ正法乙(금광14:17)
{量無ㄱ}諸菩薩ㄱ(금광14:23)
{量無ㄱ}比丘ㄱ(금광14:24)
{量無ㄱ}衆生ㄱ(금광14:24)
{貪欲覆ㅅㄱ}衆生ㄱ(금광15:01)
諸ㅎ{有ㅅㄱ}惱害ㅗㅅㄲ乙解脫ㅅㅎ(금광10:01)
災橫ㅗ諸ㅎ有ㅅㄱ 惱害ㅗㅅㄲ乙ㆍ解脫(금광10:20)

災橫ㅓ諸ㄱ有ㅅㄱ 惱害ㅓㄴㅁㄹ、解脫(금광11:06)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二者諸佛如來ㅁ{說白ㄴㄱ}甚深法ㄴ心ㅣ十常ㅐ樂ㄴ聞白ㄴㅁㅁ(금광03:26)
{願ㄴㄱ}所ㄴ悉ㅣ皆成就ㅅ가ㅅㅣ(금광06:24)

「舊譯仁王經」

▪보문을 만드는 ㅎㄴ

量無ㄴㄱ 菩薩ㅣ比丘ㅣ{八部ㅣㄴㅎㄴ}大衆ㅐ有ㅏㅎㄷ下各ㄱ各ㄱㅎ寶蓮花ㅣ十坐ㅅㄷ가<舊仁02:04>
國土ㄴ{護ㄴㅎㄴ}因緣ㄴ問白欲人ㅅㄷㅏㄹㄱ ㅇㄴㅅㄴ知白ㅣㅁㄹㄱ ㅣㅅㄱ 乃<舊仁03:17-18>
吾ㄱ今ㅅㄱ 先ㅣ諸ㄱ 菩薩爲ㅣㅎ佛果ㄴ{護ㄴㅎㄴ}因緣ㅣ<舊仁03:18-19>
十地ㄴ行ㄴ{護ㄴㅎㄴ}因緣ㅣㄴㄴ說白ㄹㅎㄴㅣ<舊仁03:18-19>
三界ㅣ{六道ㅣㄴㅎㄴ}名字ㄴ作ㅅ白ㄹㄱ ㄴ是ㄴ名ㅣ無量名字ㅣㄴㅈㄱ ㅣ<舊仁14:05-06>
此ㅐ法ㄴ{說ㄷㅎㄴ}時十量無ㄴㄱ 天子ㅣ及ㅅ諸ㄱ 大衆ㅣㄴㅎ有ㄴㅏㄱ ㅣ<舊仁14:14-15>
伏忍ㄴ得ㅂ가ㅐ가空ㅣ{無生ㅣㄴㅎㄴ}忍ㄴ[者]得ㅂ가ㅐ가<舊仁14:15-16>
乃ㅔ至ㅐ一地ㅣ{十地ㅣㄴㅎㄴ}不可說ㄴ德行ㄴㅅㄱ ㅂ가ㅐㅏㅣ<舊仁14:15-16>

▪관계절을 만드는 ㅎㄴ

復ㅅㄱ 彌勒ㅣ師子吼ㅣㅅㅁ等ㅅㄷㄱ 十千人ㄱㅏ十問ㅅㄷ가ㅅㄷㄱ ㄴ能ㅊ{答ㅅㄷㅎㄴ}者無ㄴㅂㅎㄷㅣ<舊仁03:02-03>

▪관계절을 만드는 ㅁ-피수식 명사가 주어로 실현된 경우

三界ㄴ中ㅣㄴ{衆ㅣㄴㅁㄹ}十二大衆ㄱ 皆ㄴ來ㅅㅣㅎ集會ㅅㅣ九劫蓮花座ㅣ十

坐ン白ろ丁ム<舊仁02:07-8>
時十十六大國王七中ゝ七{舍衛國主リニ尸}波斯匿王リ名ン()曰白尸月光ゝンロろ个丁德行丁<舊仁02:24-03:01>
次第罒{居士リニ尸}寶ゝ蓋ゝ法ゝ淨名ゝン尸等ンニ丁八百人ラ十間ニ分<舊仁03:01-02>
三賢ゝ十聖ゝノ个丁果報ゝ十住ンニ丁し唯ハ{佛リニ尸}一人リニゞ淨土ゝ十居ンニ丁リ罒<舊仁11:06>
如來七三業丁德リ無極ンロハニ丁{我リ尸}今ハ月光丁三寶し禮ン白ロトろ丁ゝ<舊仁11:08>
{佛リニ尸}如來ゝ乃ゞ至リ一切法ゝノ个丁如リニ丁の罒故ノゝ<舊仁15:19-20>
善男子ゝ其說白ろ丁所七十四般若波羅密リ丁三忍ゝ地地ゝ十上中下尓ン丁{三十忍ゝノ尸}一切[…]<舊仁11:24-25>

• 관계절을 만드는 尸-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

大王下若七菩薩上十見ろ尸所ゝ如丨ン丁衆生丁幻化リ罒<舊仁14:11-13>
見ろ尸所ゝ無七ニ分行ゝ十亦ン丁不受ン彡不行ゝ十亦ン丁<舊仁15:15-18>

• 관계절을 만드는 ヒ七-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復ン丁他方七量ノ个可七ン丁{不矢リヒ七}衆有七ナ分<舊仁02:01-2>
時十無色界七子丁量無七丁{變ノ丁ヒ七}大香花し雨ろ丁ム<舊仁02:14-15>
一切報し盡ゝロ{無極ン丁ヒ七}悲しンニ分第一義諦ゝ十<舊仁11:04-05>
百億萬土丁六大動ンロヒし分生し{含ン丁ヒ七}[之]生丁妙報し受ロヒ丁ゝ<舊仁11:12>
相{無七丁ヒ七}第一義丁自無七彡他作無七彡ン分因緣罒本罒ハ自ラ罒<舊仁14:24-25>
諸ラ有七リ丁{本有ンヒ七}法丁三假リ集ン丁の罒ンゝ假有ンナ丁リ分<舊仁15:01>

▪보문을 만드는 ㅌㄴ

餘ㅅㄱ 習ㄲㄱ 無明緣ㅣ 無明習相ㄲㄱ {故ㄴㅅㄱ ㅌㄴ}煩惱ㅣㅅㄴㅣ除ㅅㄷㅏㄹㄱㅇㅣ<舊仁11:01-2>

幻諦ㄴ法ㄱ 佛ㄲ出世ㅅ白ㄹ尸{無ㄴㄷㄱ ㅌㄴ}前ㅈ十<舊仁14:02-03>

一ㄲ가{二ㄲㅌㄴ}[之]義ㄱ 其事云何ㄴㅅㅁㅌㄹ<舊仁14:19-20>

{一ㄲㅌㄴ}義ㅣ 二ㄲㅌㄴ義ㅣㅅㄴㅣ 問白ㅈ ㅏㄷㄱ ㄲㅛ<舊仁14:20-21>

{二ㄲㅌㄴ}義ㅣㅅㄴㅣ 問白ㅈ ㅏㄷㄱ ㄲㅛ<舊仁14:20-21>

聽ㅅ尸無ㄴ가 說ㅅ尸無ㄴㄱ ㅇㄴㅣ 卽ㄹ{爲一ㄲㅌㄴ}義ㅣㅅ가<舊仁14:21-23>

{二ㄲㅌㄴ}義ㅣㅅㅎㄱ ㅇ亽故ㅅㅣ 諦聽諦聽가<舊仁14:21-23>

{解ㅅㄱ ㅌㄴ}心ㅈ十二不矢ㄱ ㅇㄴㅣ 見ㅏㄱ ㄲㅛ<舊仁15:04>

五眼ㄲ{成就ㅅ亾ㅏㄷㄱ ㅌㄴ}時十見ㄷㄱ 乃見ㄹ尸所ㅈ無ㄴㄷ가<舊仁15:15-18>

菩薩ㄲ成佛ㅅ尸{未ㄲㅅㅌㄴ}時十<舊仁15:18-19>

菩薩ㄲ{成佛ㅅ亾ㄱ ㅌㄴ}時十煩惱ㅣ以ㅈ菩提爲ㅣㅏㅎㄴㅣ<舊仁15:18-19>

▪보문을 만드는 ㄱ

{爾ㄴㅅㄱ}時十<舊仁02:10>

釋迦牟尼佛ㄱ 年ㅣ{初ㄴㄹㅅㄱ}月ㄴ八日ㅈ十方ㄴ十地ㅈ十坐ㅅㄷ下<舊仁02:10-11>

大寂室三昧ㅈ十{入ㅅㄷㅅㄱ}緣ㅣ思ㅅㅈ ㅎ大光明ㅣ放ㅅㅈ三界ㄴ中ㅣ照ㅅㅌㅏㄷ가<舊仁02:11-12>

上ㅅㄱ 非想非非想天ㅈ十至ㅏ가{是ㄴㅅㄱ}時十世界ㄴ其地ㄱ 六種ㅛ震動ㅅㅁㅌㅣ<舊仁02:17-18>

{爾ㄴㅅㄱ}時十諸ㄱ 大衆ㄱ 俱ㄴㅅㅈ ㅎ共ㄴ僉然ㅋ生疑ㅅㅈ各ㅎ相ㄹ모亾ㄹ謂言ㅅㅏ尸<舊仁02:19>

{月光ㅣㅅ白ㄹ亽ㄱ}德行ㄱ 十地ㅣ 六度ㅣ 三十七品ㅣ 四不壞淨ㅣㅅㄴㅅㅋ<舊仁02:24-03:01>

{爾ㄴㅅㄱ}時十<舊仁03:04>

{爾ㄴㅅㄱ}時十<舊仁03:17-18>

{爾ヒソ丁}時十<舊仁03:22-23>
窮原ソ彡{盡性ソ彡ソニ丁}妙智ミリ(リミ)存ソニカ<舊仁11:04-05>
{爾ヒソ丁}時十波斯匿王丁言ニ尸第一義ヒ中ミ十世諦有ヒトソロ乙个ミ不矢リ乙丁ヒミ<舊仁14:18>
法性丁本罒ハ{無ソ丁}性リ罒第一義リ彡空リ彡如リ彡ソカ<舊仁14:25>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주어인 경우

各ラ各ラミホ座前ヒ花罒ヒ上十{量無ヒ丁}化佛リ有ナハニカ<舊仁02:03>
{量無ヒ丁}菩薩ミ比丘ミ八部ミノ个ヒ大衆リ有ナハニ下各ラ各ラホ寶蓮花ミ十坐ソニカ<舊仁02:04>
花上ミ十皆ヒ{量無ヒ丁}國土リ有ヒ乙丁ム一一國土ミ十ヤト<舊仁02:05-6>
十號リ彡三明リ彡大滅諦リ彡{金剛智リ彡ソニ丁}釋迦牟尼佛丁年し<舊仁02:10-11>
時十無色界ヒチ丁{量無ヒ丁}變ノ丁ヒヒ大香花し雨乙丁ム香丁車輪如トソ彡<舊仁02:14-15>
十八梵天王丁百變異色花し雨リ彡六欲ヒ諸丁天カ{量無ヒ丁}色花し雨リ彡ソナカ<舊仁02:16-17>
四無所畏リ彡十八不共法リ彡五眼リ彡{法身リ彡ソニ丁}大覺世尊丁前ラ已ミ<舊仁02:19-21>
{何ヒソ丁}事し作ソヒイソニトフリミヒロソヒハニカ<舊仁02:23-24>
次第罒居士リニ尸寶ミ蓋ミ法ミ淨名ミソ尸{等ソニ丁}八百人ラ十問ニカ<舊仁03:01-02>
復ソ丁須菩提ミ舍利佛ミソ尸{等ソニ丁}五千人ラ十問ニカ<舊仁03:02>
復ソ丁彌勒ミ師子吼ミソ尸{等ソニ丁}十千人ラ十問ソニカソニ丁し能矢答ソニ个ヒ者無ヒヒハニト<舊仁03:02-03>
亦ソ丁復乙共ヒ{量無ヒ丁}音樂し作ソミ如來し覺寤ソリ白ロハニ丁<舊仁03:12-13>
如來し{覺寤ソリ白ロハニ丁}佛丁卽乙時リ土乙丁のし知ニカ<舊仁03:12-13>

{量無ヒㄱ}神通し現ろヒハニㄱ丶地丶及ハ虛空丶ノラ十大衆リ而〻住ソヒハニㅣ<舊仁03:13-15>
等人慧人灌頂人ヒ三品土ㄱ前ラ{餘ソㄱ}習リㄱ無明緣丶無明習相リㄱ故ヒノㄱヒヒ煩惱丶ノし<舊仁11:01-2>
等人慧人灌頂人ヒ三品土ㄱ前ラ餘ソㄱ{習リㄱ}無明緣丶無明習相リㄱ故ヒノㄱヒヒ煩惱丶ノし<舊仁11:01-2>
三十生し盡ゝロ等ゝ大覺ソニか{大寂無爲リㄱ}金剛藏しソニか<舊仁11:03-04>
法王ㄱ上無ヒゝ人中ゝヒ樹リニ下大衆し覆蓋ソ白ろ尸ム{量無ヒㄱ}光〻ソニか<舊仁11:09>
{量無ヒㄱ}功德藏し歎ソニトろㄱのし聞白ロソㄱ大法利し得ヒハニか<舊仁11:14-15>
佛ㄱ諸ラ道果し{得ナㄱ}實天衆ラ十告ニ尸<舊仁11:20-22>
{十四般若波羅密リㄱ}三忍丶地地ゝ十上中下ホソㄱ三十忍丶ノ尸一切[…]<舊仁11:24-25>
三界ヒ名字無ヒき{善惡果報リㄱ}六道ヒ名字無ヒきソナㅣ<舊仁14:03-04>
大王下若ヒ菩薩上十見ろ尸所ゝ{如ㅣソㄱ}衆生ㄱ幻化リ〻<舊仁14:11-13>
此リ法し說ニ今ヒ時十{量無ヒㄱ}天子丶及ハ諸ㄱ大衆丶ノ今有ヒナㄱ丶<舊仁14:14-15>
諸ラ{有ヒリㄱ}本有ソヒヒ法ㄱ三假リ集ソㄱのㅅソゝ<舊仁15:01>

▪관계절을 만드는 ㄱ-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是如ㅣソか是如ㅣソゝ汝ラ{解ソ乂ㄱ}所ゝ如ㅣソナㄱ眞義し得ゝ說トㄱリ〻<舊仁11:22-23>
善男子ゝ{其說白ろㄱ}所ヒ十四般若波羅密リㄱ三忍丶地地ゝ十<舊仁11:24-25>